용인 D 주택

Yongin D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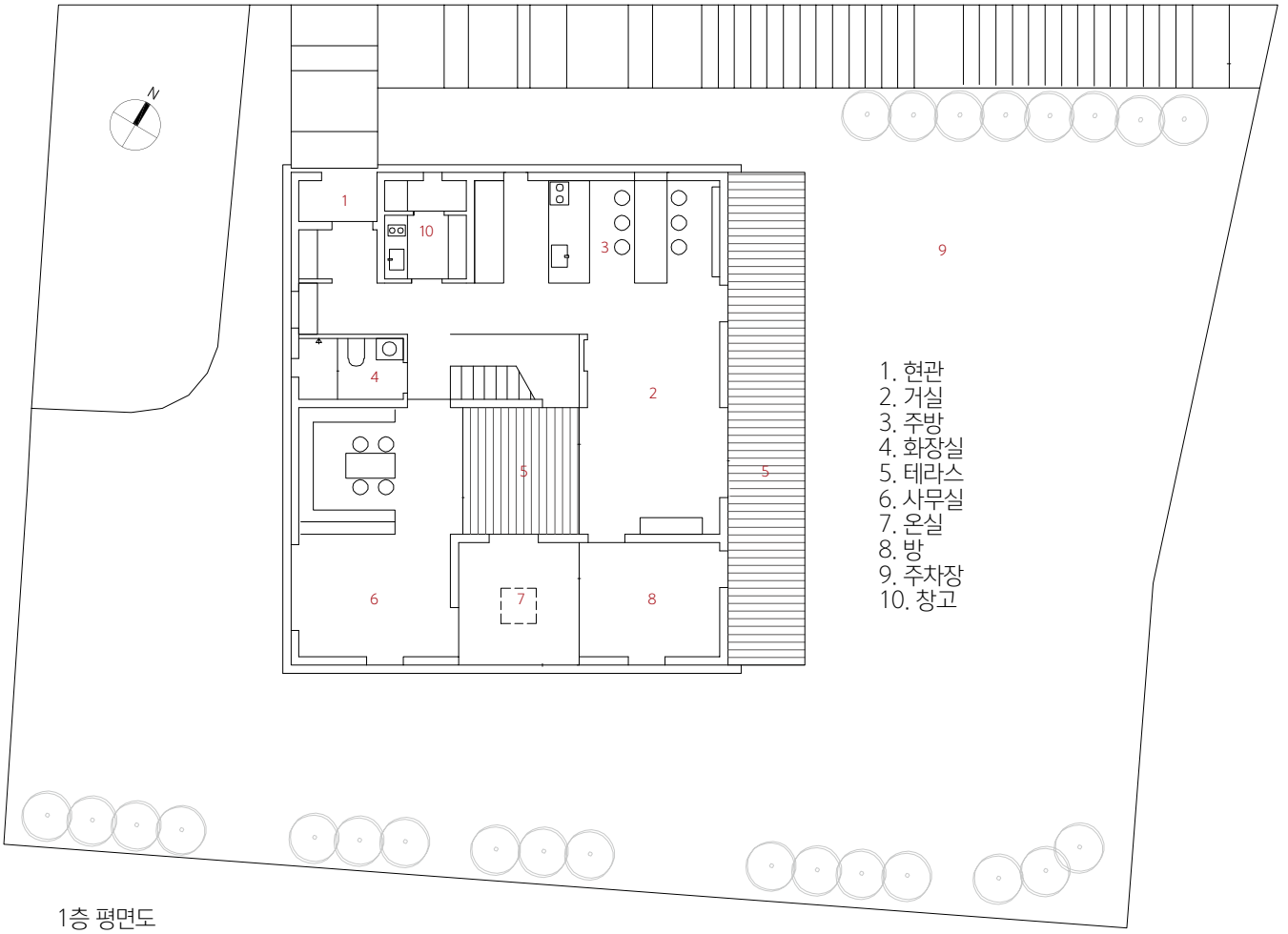
설계자 | **황준**_KIRA | 황준도시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박소영, 남해룡, 고주형, 이현경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TSEC Group

감리자 | 황준도시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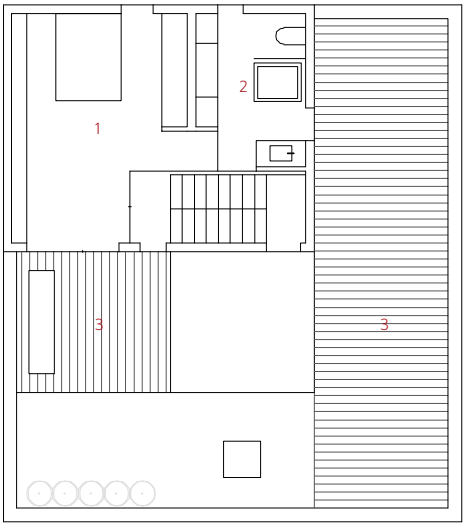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로 28번길 19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588.0㎡
건축면적 | 114.03㎡
연면적 | 194.38㎡
건폐율 | 18.94%
용적률 | 25.44%
규모 | 주건축물 지상 2층, 부속건축물 지하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복층유리, 자기질코팅
- 내부 : 자작나무합판, 목재바닥판, 친환경페인트

설계기간 | 2014. 06~2014. 09
공사기간 | 2014. 10~2015. 07
사진 | 박영채



1. 현관
2. 거실
3. 주방
4. 화장실
5. 테라스
6. 사무실
7. 온실
8. 방
9. 주차장
10. 창고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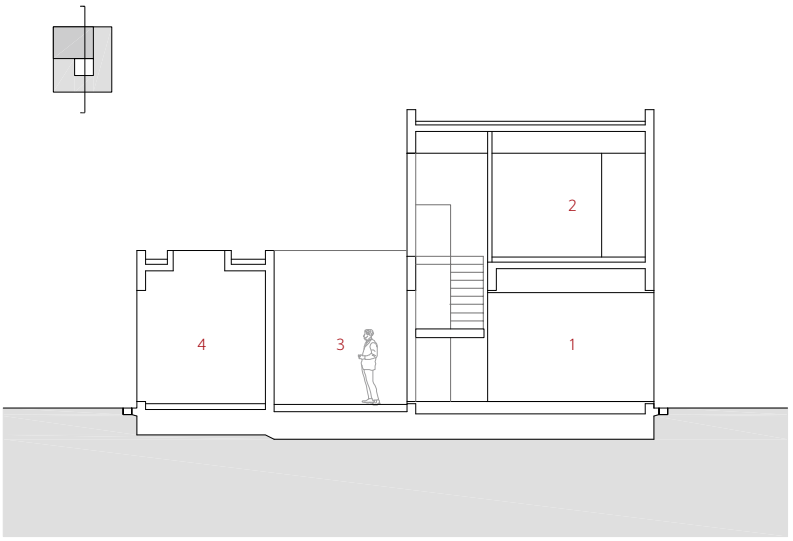


1. 방
2. 화장실
3. 테라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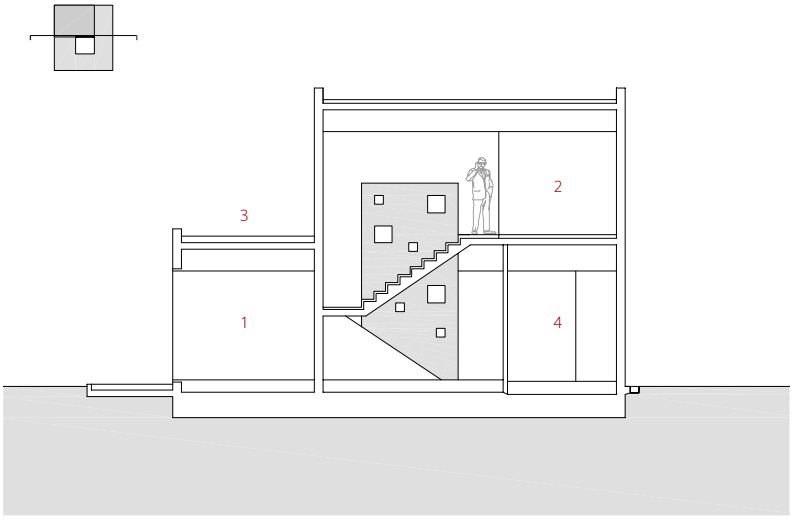
0 1 3 6 10m

1. 주방
2. 화장실
3. 테라스
4. 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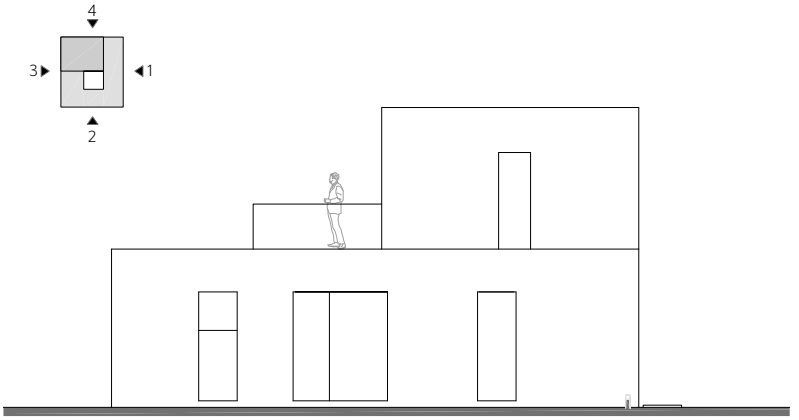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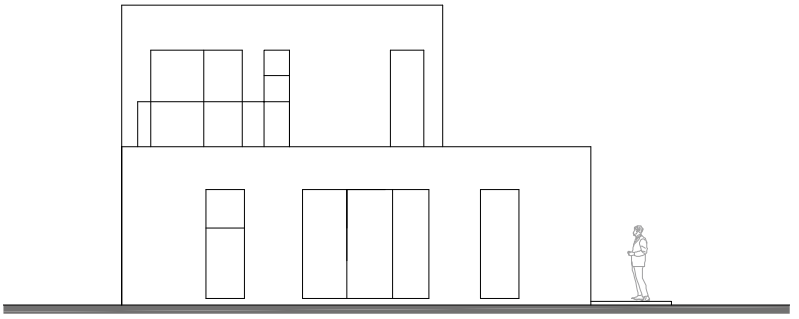
1. 거실
2. 방
3. 테라스
4.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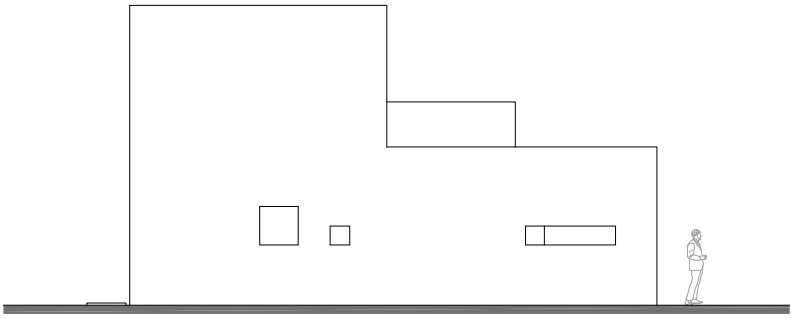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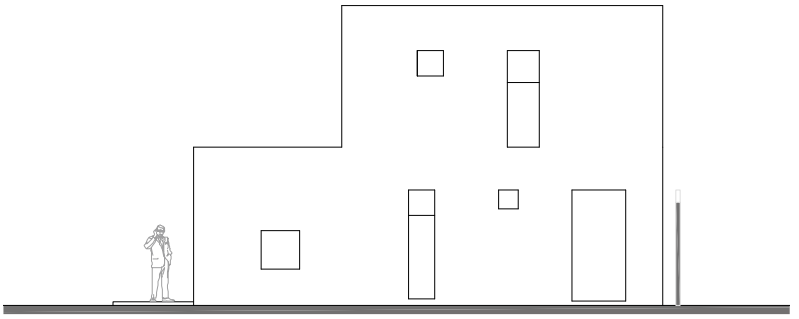
입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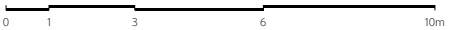
입면도2



입면도3



입면도4



교외 전원주택 짓기

건물은 판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다. 동측에는 논과 배나무 밭이 있어서 근사한 경치가 보인다. 꽃과 나무를 키우는 것이 취미인 건축주부부는 전원주거단지의 특성상 넓은 마당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대지를 구입했다. 숲을 면하고 있어서 공기가 맑은 곳에 집이 지어졌다.

건물은 도로에서 1개 층 정도 높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에서 건물의 1층 현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문을 통해 한개 층을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로 인하여 도로 측 보행자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이격될 수 있었다. 건물은 남측으로 향하도록 계획하였지만 동측의 진입부와 풍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였다.

1층에는 손님을 위한 침실과 거실, 주방 겸 식당, 재택근무가 가능한 서재, 온실이 있고, 2층은 주인부부를 위한 침실과 욕실로 구성된다. 건물의 외관은 최대한 단순화시켰다. 흰색 외벽 재료는 자기질 코팅을 사용하고, 건물의 내부는 자작나무 합판을 적극 도입하였다. 벽면뿐 아니라 가구, 문짝 등에도 자작나무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다.

건물의 진입은 대문을 통해 동측으로부터 올라와서 주택의 뒤편인 북측에서 현관으로 진입한다. 건물이 흰색벽체의 느낌을 더욱 살리기 위하여, 대문은 짙은 회색, 옥외 계단은 거친 회색의 무근 콘크리트로 투박하게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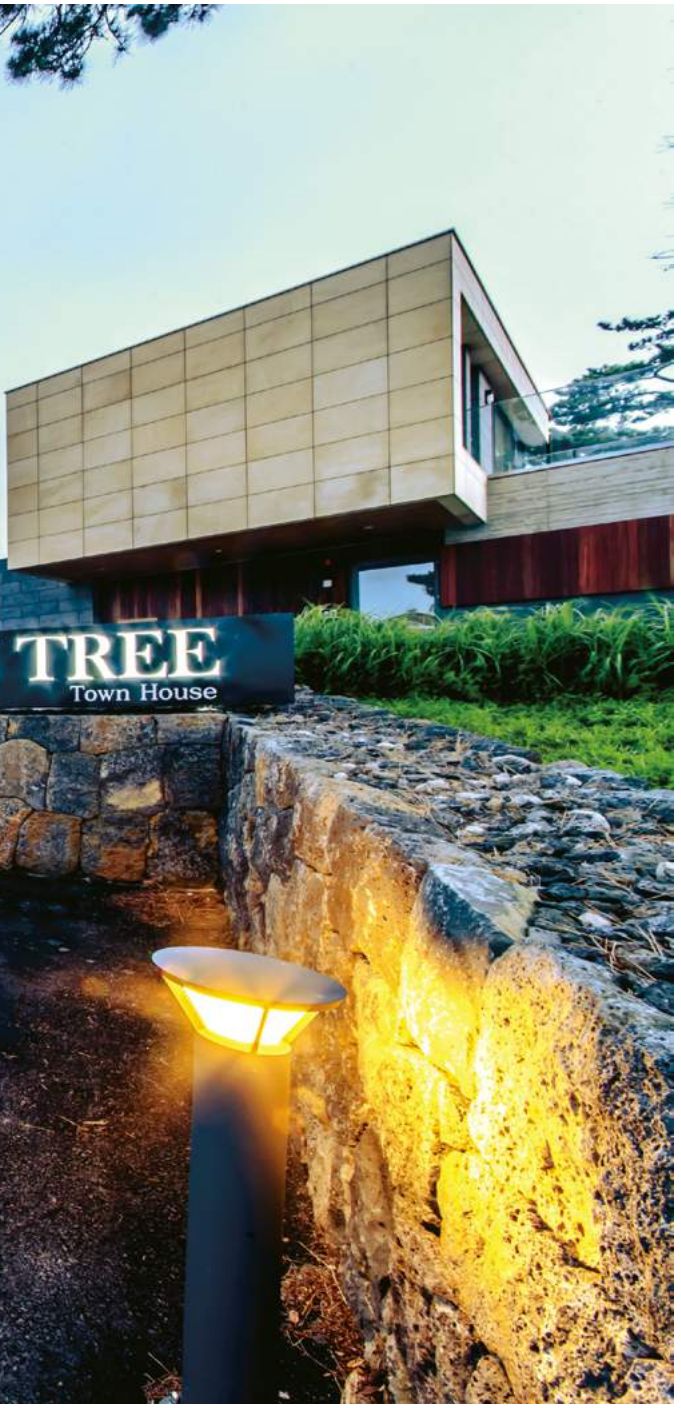
건물의 중앙에 있는 중정은 1층의 모든 부분에 빛을 유입하게 하고, 환기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중정에 면한 벽에는 큰 창문들이 있어서, 중정에 면한 방들에서 중정을 통해 외부의 여러 풍경을 볼 수 있게 된다.

1층 남쪽에는 천장이 있는 온실이 있으며, 서재 겸 재택근무공간에서 중정과 온실을 통해 남측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중정에 면한 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2층의 주인 침실은 1층과는 완전히 독립된다. 2층 주인 침실의 욕실은 침실과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구성으로 일반적인 크기보다도 훨씬 크게 계획되었다.

주택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조명은 따뜻한 분위기의 느낌을 갖도록 고려되었고, 모든 침실은 일반적인 다운라이트를 최소로 줄이고, 평소 간접조명만을 사용하여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든 가구와 대문, 택배 및 우편함 등, 모든 부분을 디자인하여 건물과 일체화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중정, 중정을 통해 외부의 빛이 내부까지 들어오도록 하는 내부 유리 벽체 등…….
살아가면서 많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집이 되도록 하였다.

BROWN
110



브라운 트리

Brown Tree in Myeong_w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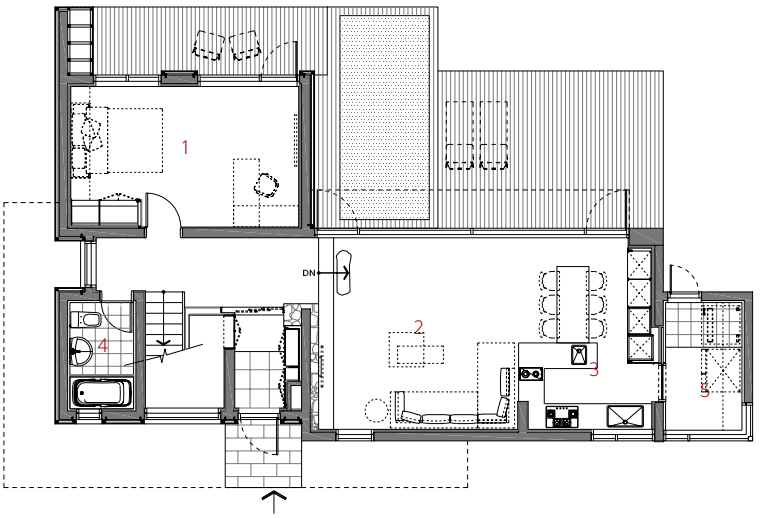
설계자 | **강중열**_KIRA |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 설계팀 : 김남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부산건축구조연구소
  - 기계설비분야 : 명설비
  - 전기분야 : (주)아성기술단

건축주 | **개인**
감리자 | **제이엠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지오디자인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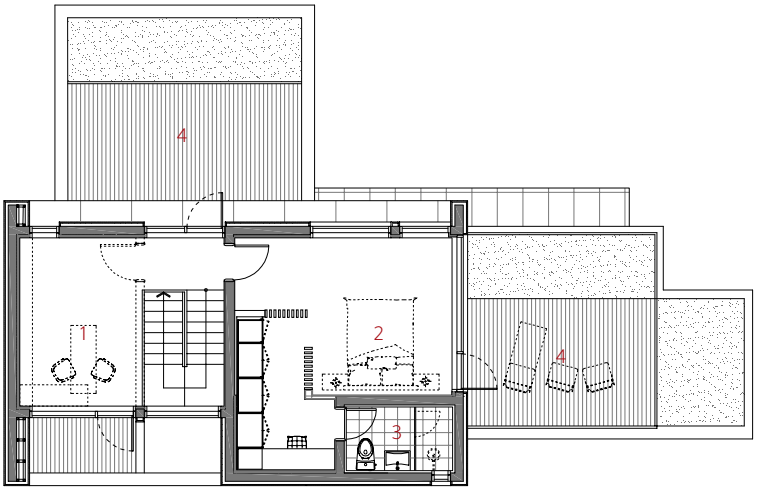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965번지 일원
주요용도 | 단독주택단지
대지면적 | 5,126㎡
건축면적 | 974.16㎡
연면적 | 1,204.80㎡
건폐율 | 19.00%
용적률 | 22.45%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인조라임스톤, 제주석, 카본탄화목,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마감
- 내부 : 대리석, VP도장, 훈중무늬목

설계기간 | 2013. 07~2013. 12
공사기간 | 2014. 01~2015. 02
사진 | 김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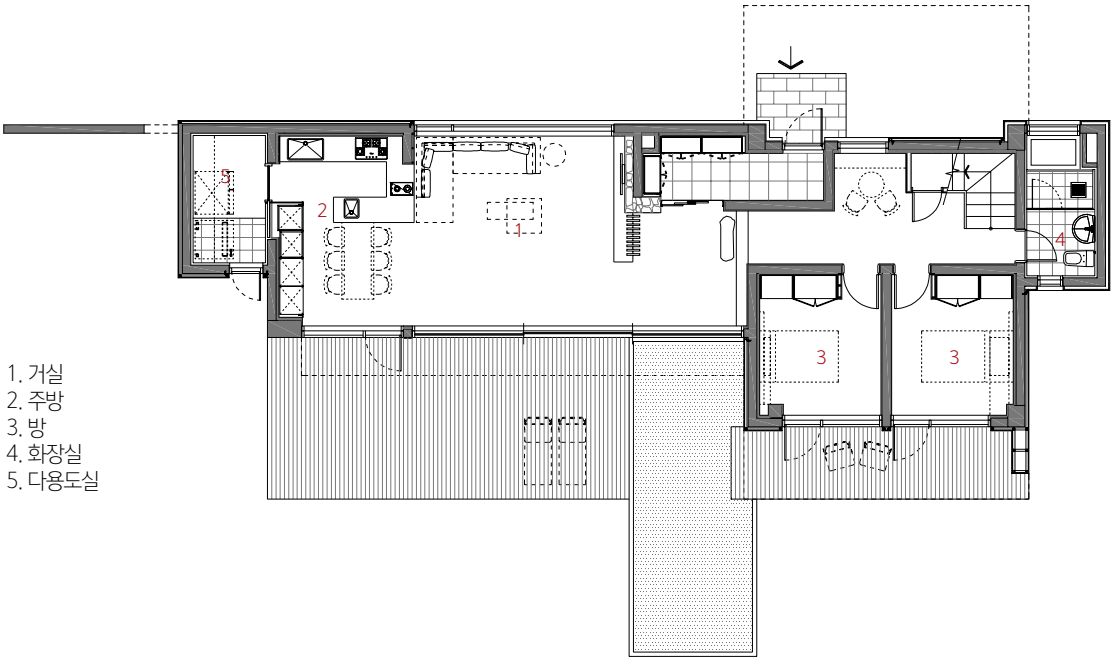
1. 방
2. 거실
3. 주방
4. 회장실
5. 다용도실

42py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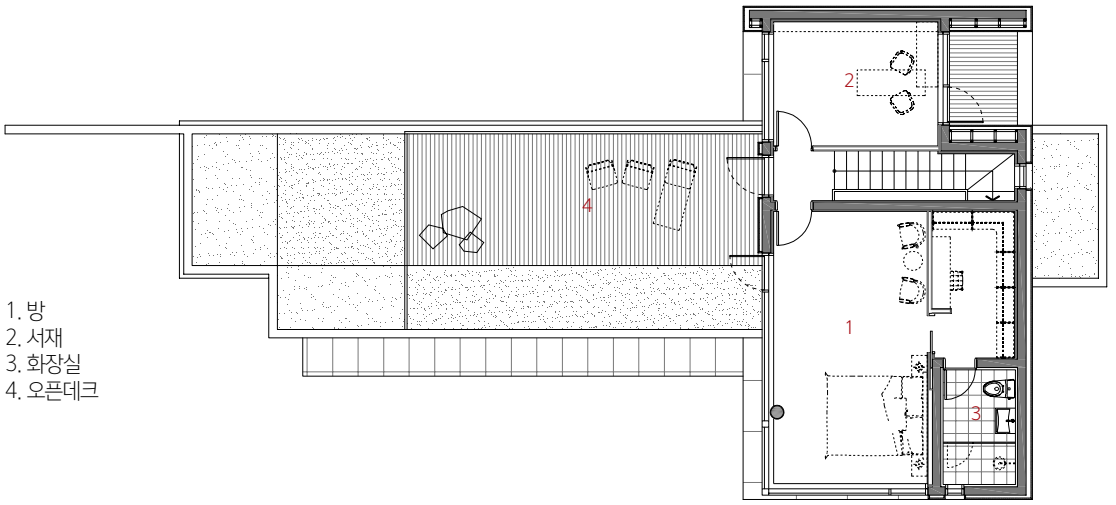
1. 서재
2. 방
3. 회장실
4. 오픈데크

42py 2층 평면도



1. 거실
2. 주방
3. 방
4. 화장실
5.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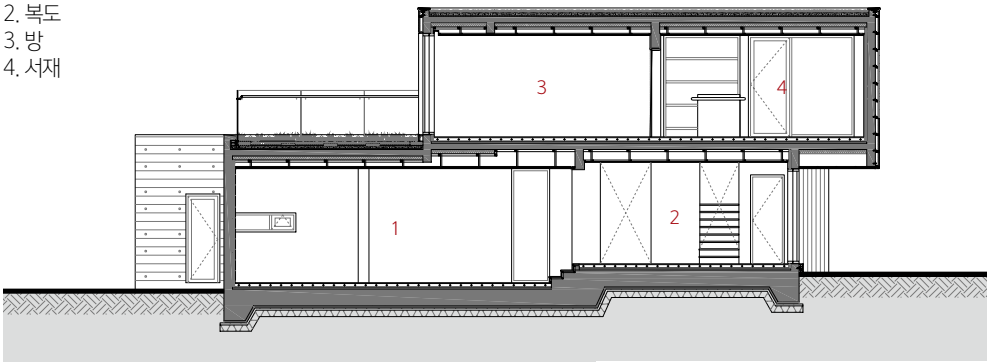
48py 1층 평면도



1. 방
2. 서재
3. 화장실
4. 오픈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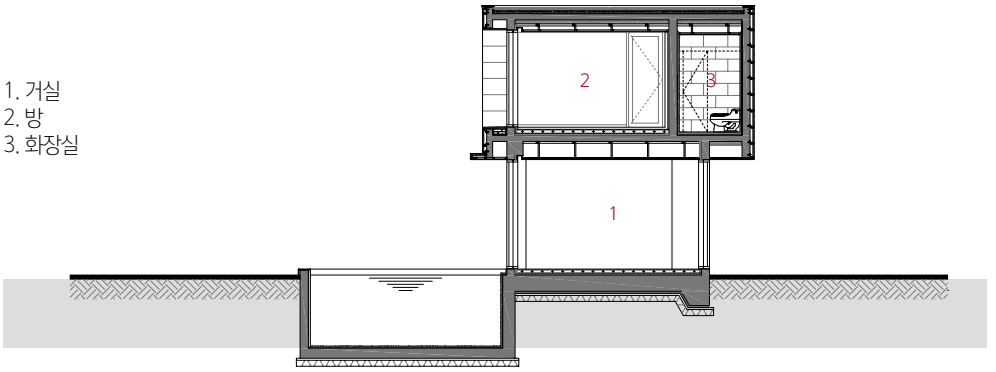
48py 2층 평면도

1. 거실
2. 복도
3. 방
4.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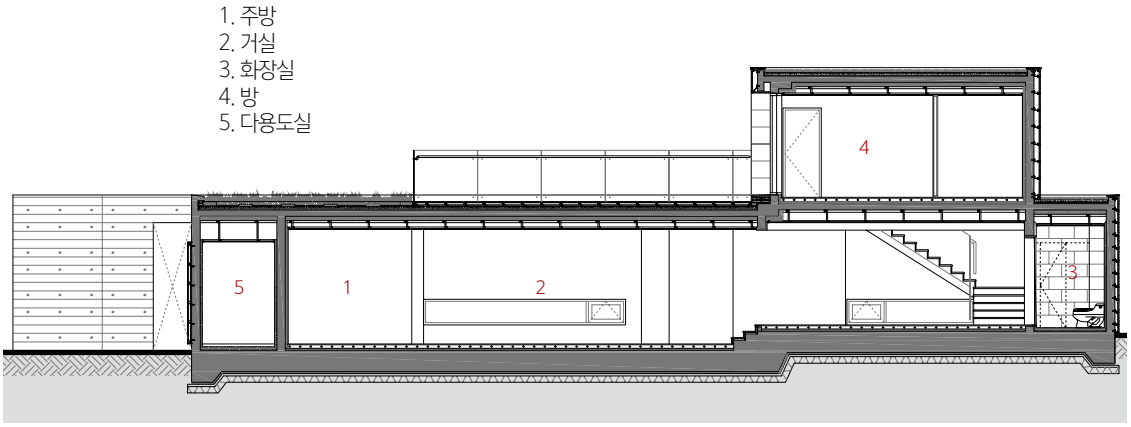


42py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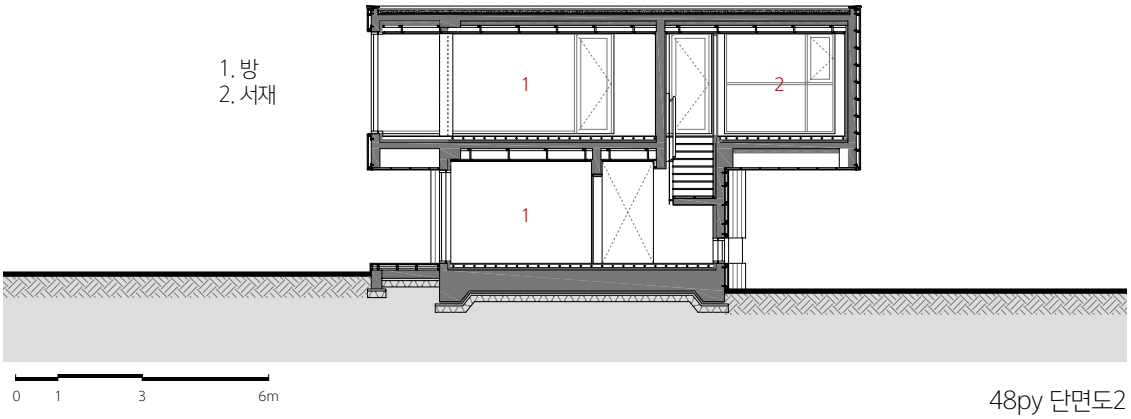
1. 거실
2. 방
3.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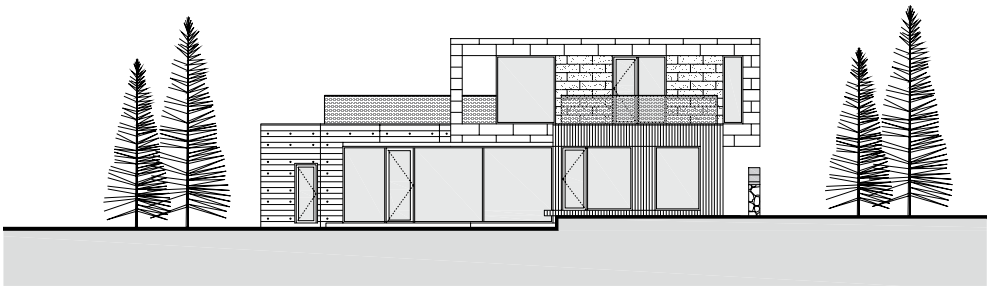
42py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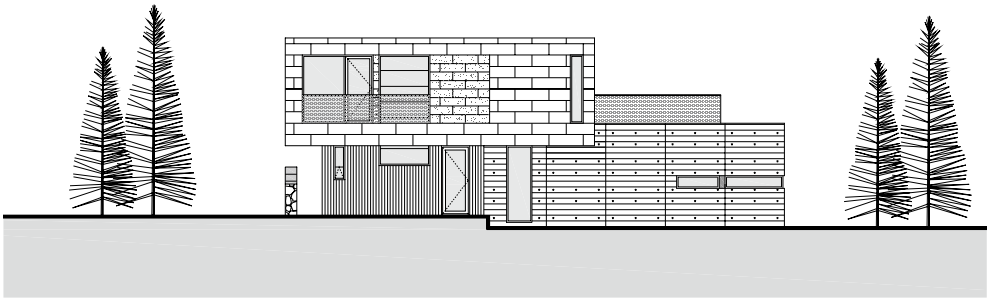
48py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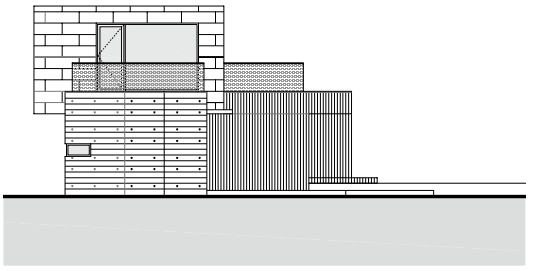
48py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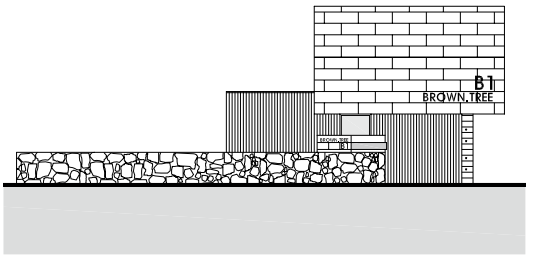
42py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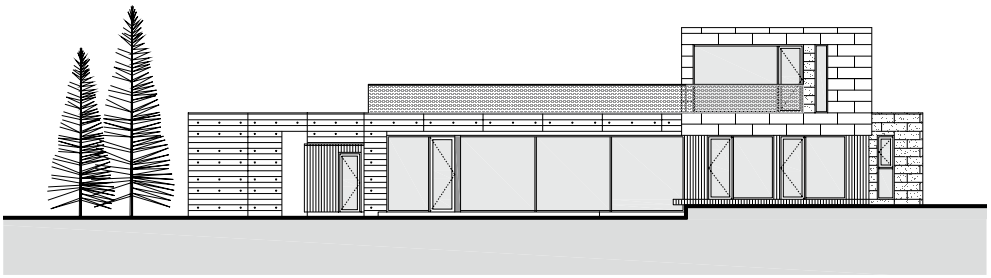
42py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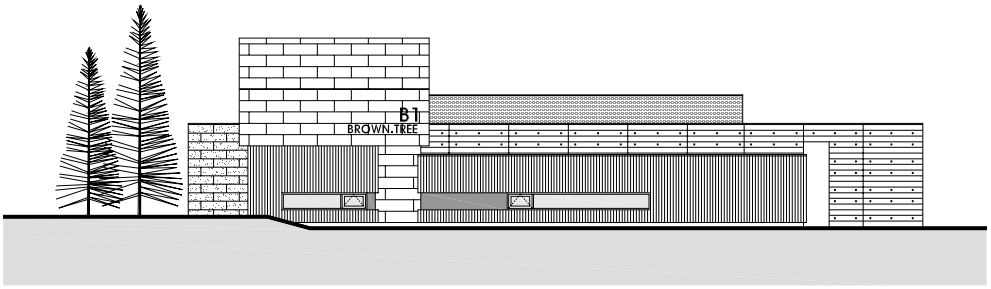
42py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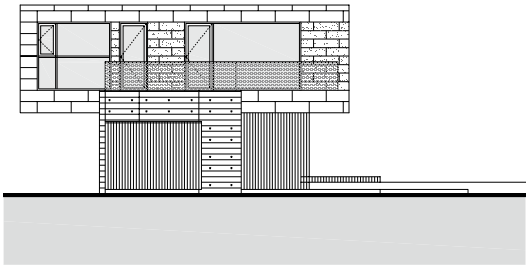
42py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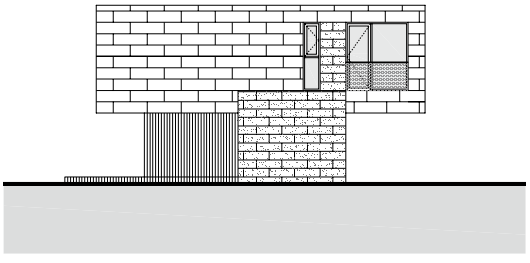
48py 정면도



48py 배면도



48py 좌측면도



48py 우측면도

Brown Tree – 제주의 풍경을 담은 마을

브라운트리 주택단지는 제주의 아름답고 한가로운 마을, 명월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단지이다. 예로부터 명월리는 팽나무군락이 유명하며 제주의 정취를 즐기던 선비의 마을이라고 한다. 건축주와 처음 현장미팅을 가지던 날 좀 더 제주의 속살을 본 듯한 느낌에 명월리란 곳을 좋아하게 되었다.

Making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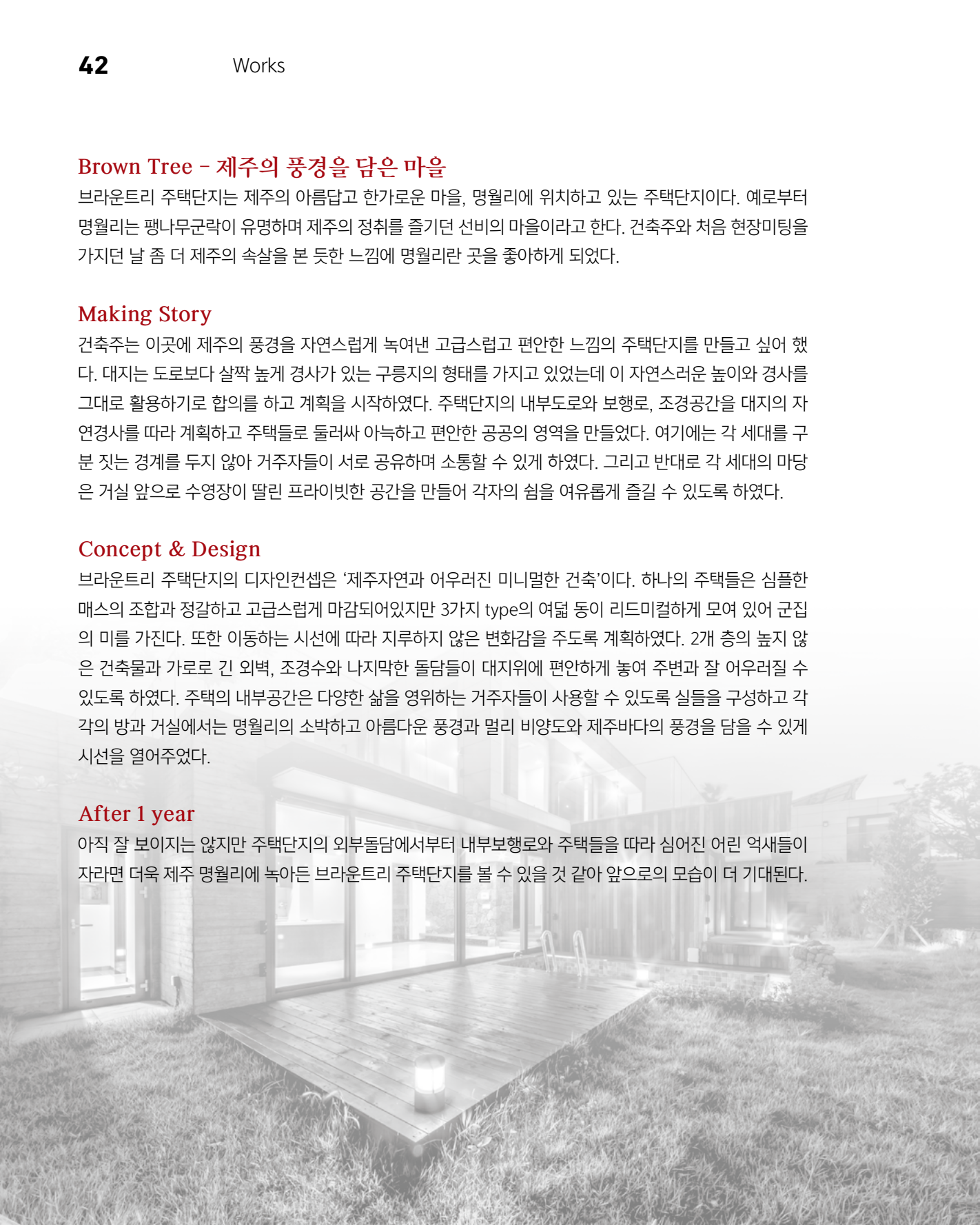
건축주는 이곳에 제주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주택단지를 만들고 싶어 했다. 대지는 도로보다 살짝 높게 경사가 있는 구릉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연스러운 높이와 경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합의를 하고 계획을 시작하였다. 주택단지의 내부도로와 보행로, 조경공간을 대지의 자연경사를 따라 계획하고 주택들로 둘러싸 아늑하고 편안한 공공의 영역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각 세대를 구분 짓는 경계를 두지 않아 거주자들이 서로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반대로 각 세대의 마당은 거실 앞으로 수영장이 딸린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각자의 쉼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Concept & Design

브라운트리 주택단지의 디자인컨셉은 '제주자연과 어우러진 미니멀한 건축'이다. 하나의 주택들은 심플한 매스의 조합과 정갈하고 고급스럽게 마감되어있지만 3가지 type의 여덟 동이 리드미컬하게 모여 있어 군집의 미를 가진다. 또한 이동하는 시선에 따라 지루하지 않은 변화감을 주도록 계획하였다. 2개 층의 높지 않은 건축물과 가로로 긴 외벽, 조경수와 나지막한 돌담들이 대지위에 편안하게 놓여 주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의 내부공간은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들을 구성하고 각각의 방과 거실에서는 명월리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멀리 비양도와 제주바다의 풍경을 담을 수 있게 시선을 열어주었다.

After 1 year

아직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택단지의 외부돌담에서부터 내부보행로와 주택들을 따라 심어진 어린 억새들이 자라면 더욱 제주 명월리에 녹아든 브라운트리 주택단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된다.



11

소소원

Sosowon

설계자 | **조정구**_KIRA | ㈜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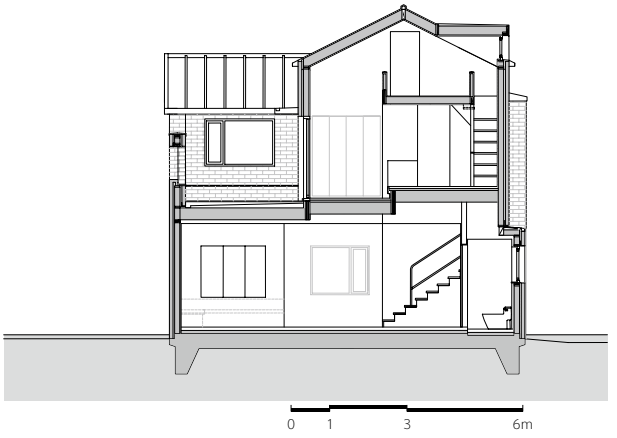
- 설계팀 : 조정구, 탁충석, 다니엘탠들러, 박진경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BOLD engineer & Associates,Inc
  - 기계설비분야 : 건화설비
  - 전기분야 : 동도이엔씨

건축주 | **허성욱, 김신연**
감리자 | **㈜구가도시건축**
시공사 | **㈜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대지위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227.8㎡
건축면적 | 107.15㎡
연면적 | 175.04㎡
건폐율 | 47.04%
용적률 | 76.84%
규모 | 지상2층, 다락
구조 | 경량목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치장벽돌
- 내부 : 석도보드 위 페인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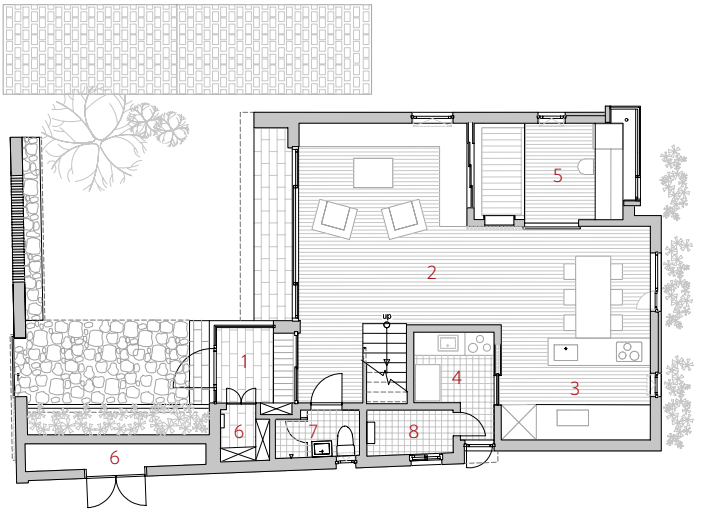
설계기간 | 2012.10~2013.3
공사기간 | 2013.8 ~ 2013.12
사진 | 윤준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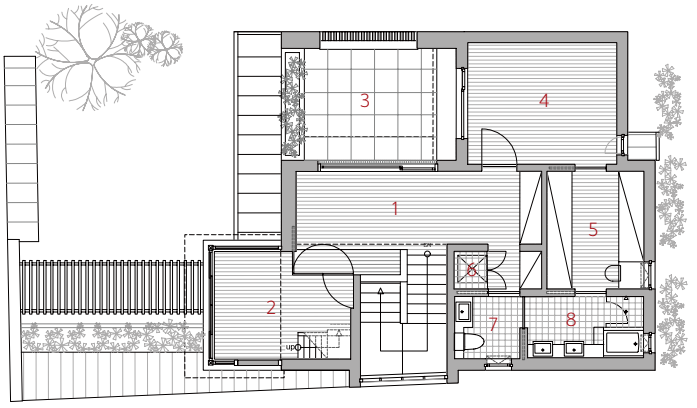
단면도

1. 현관
2. 거실
3. 주방
4. 보조주방
5. 작업실
6. 창고
7. 화장실
8.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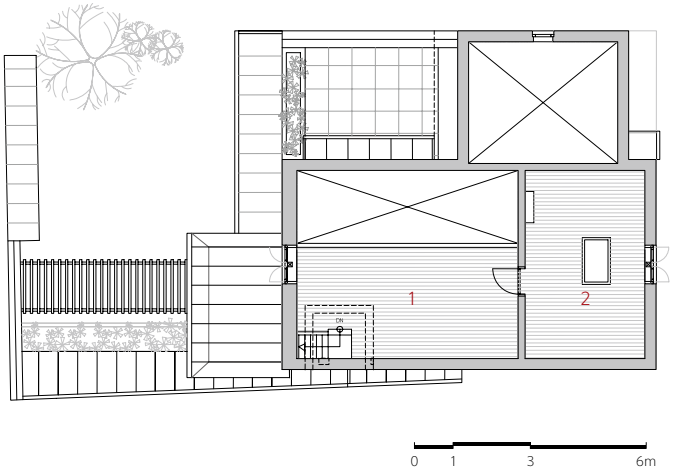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가족실
2. 누마루
3. 테라스
4. 침실
5. 드레스룸
6. 세탁실
7. 화장실
8. 욕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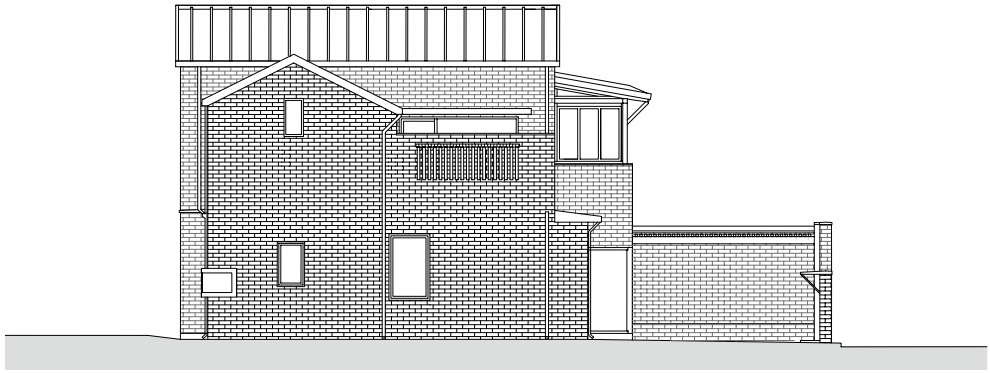
1. 다락1
2. 다락2 /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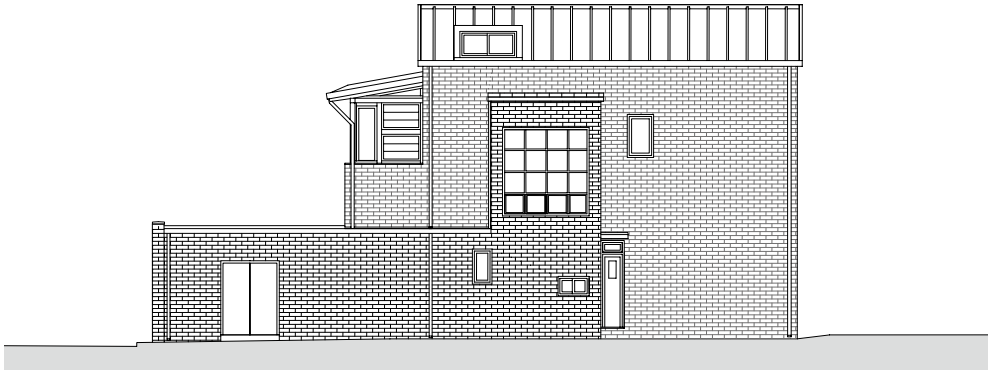
다락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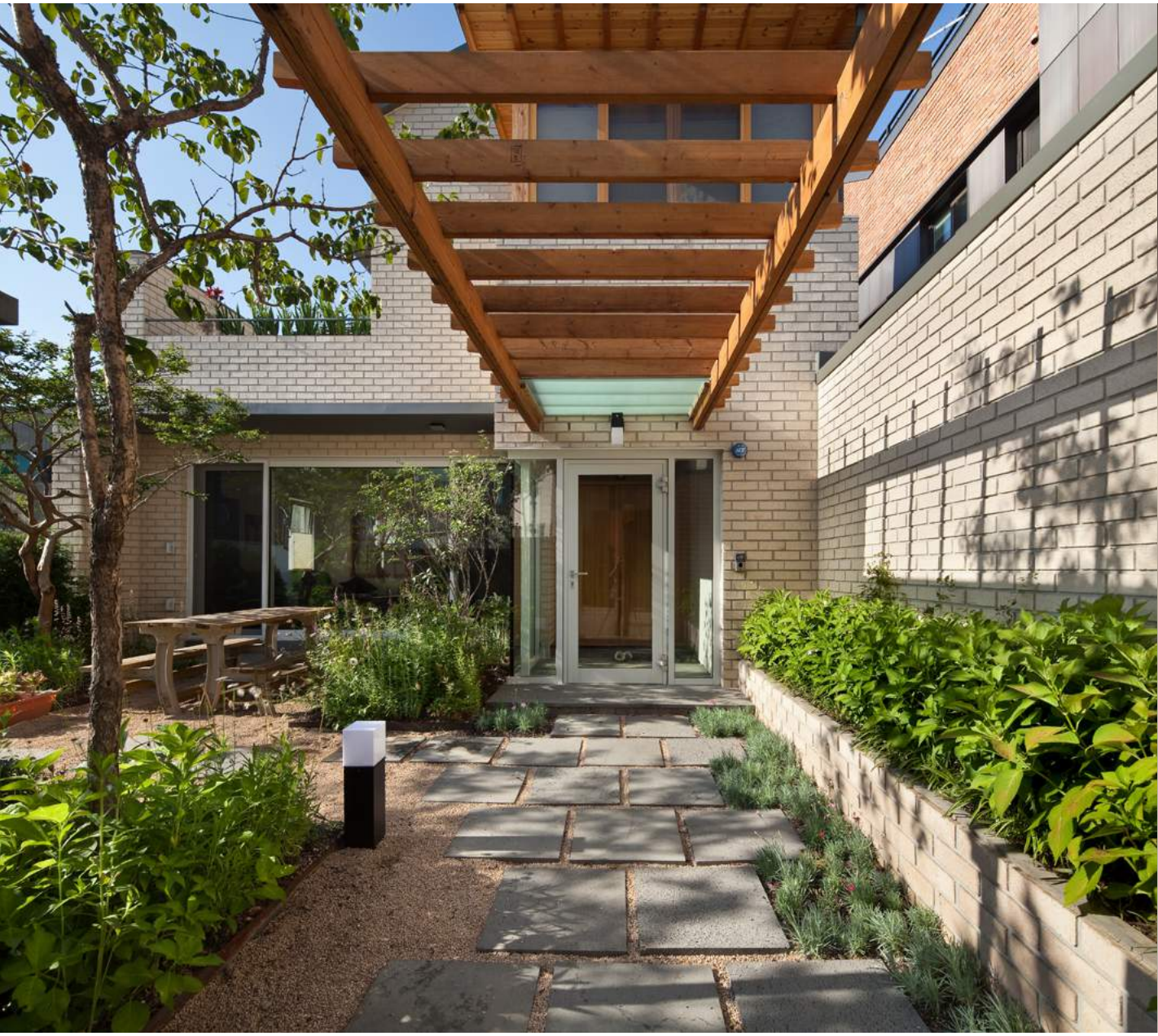


우측면도

소소원은 판교에 지은 네 번째 집이다. 모두 다른 집이지만 하나같이 생각한 주제는 <마당집>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당집이란 도시한옥과 같이 '생활의 중심에 마당을 두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집'을 말한다. 소소원은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삶의 공간으로 '마당을 쓰는 집'으로 계획하였다.

대문과 창고, 화단으로 이루어진 벽, 다르게 말하면 '건축화 된 담장' 속으로 들어오면 네모난 모양의 1층은 마당과 1:1로 '크게' 만난다. 단순한 느낌의 실내공간은 거실에서 식당과 주방,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공간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잘 보면 그 흐름 속에 '두 개의 박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작업실로 거실을 거쳐 마당을 느낄 수 있도록 한지 창을 열고 닫을 수 있게 계획했다. 다른 하나는 마당으로 돌출한 현관이다. '열린 현관'을 생각하며, 투명한 현관을 마당에 내밀어, 마당을 보며 드나들게 하였다.
집은 작지만 마당과 같이 경험하는 공간은 작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다. 파란 대문을 들어서면 나무 그늘이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목재 파골라가 나타난다. 파골라는 밖에서 활동할 때 쉘터로 역할한다. 거실과 마당 사이에도 처마를 두어 계절에 따라 햇빛을 조절했다. 단순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마당을 즐기는 삶의 바탕이 되리라 보았다. 2층은 네모난 바탕에 한쪽으로 작은 마당을 두고 ㄱ자로 배치해, 부부침실, 복도, 누마루에서 보거나 나갈 수 있게 했다. 1층 큰 마당과 2층 작은 마당도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위, 아래 따로 있어도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하였다.

소소원을 설계하면서, '한 눈에 띄는 독특함'보다, 동네에 어울리는 '집다운 집'을 지으려 했다. 개성이 강한 동네 속에서 틔지 않게 조형과 구성에서 좋은 틀을 갖추어 다양한 삶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런 집을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차분함과 평범함이 오히려 더 달라 보이는 아이러니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개성과 욕망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보편적인 집의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ADT

모노하우스

Mono House

설계자 | **강명수**_KIRA | 건축사사무소 에이앤디

- 설계팀 : 박준철, 최재훈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에이치비이로우이건설 구조팀
  - 기계설비분야 : 에이치디 설비기술단
  - 전기분야 : (주)기성이앤씨
  - 소방분야 : 에이치디 설비기술단
  - 유틸리티 : (주)기성이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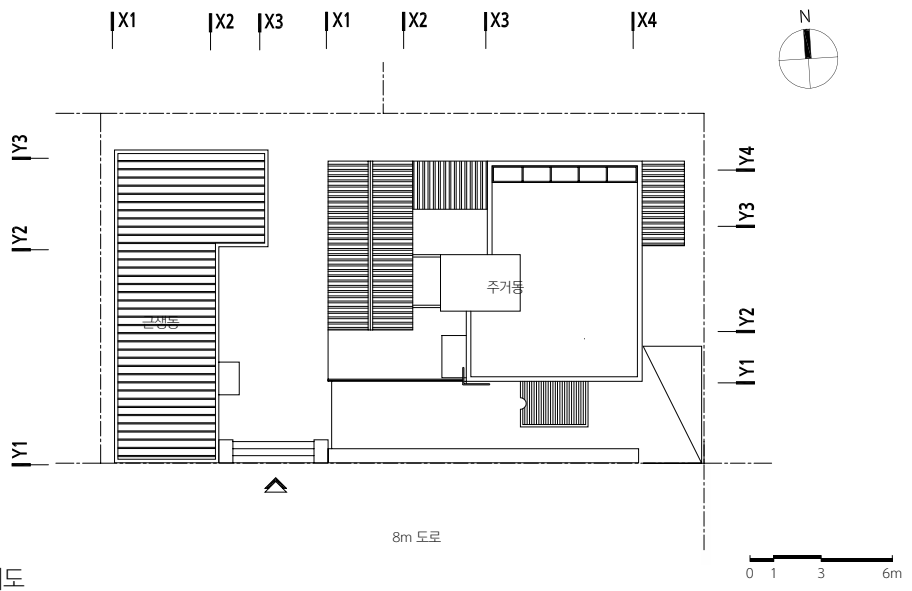
건축주 | **김구엽**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이림**
시공사 | **(주)에이치비이로우이건설**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21길 30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385.30㎡
건축면적 | 162.45㎡
연면적 | 222.34㎡
건폐율 | 42.16%
용적률 | 57.70%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일반 목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단열 패널, 외단열 시스템(스터코)
  - 내부 : 천연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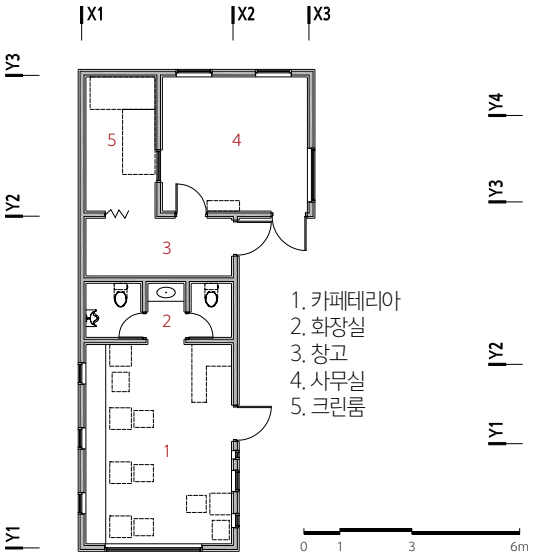
설계기간 | 2013. 01~2013. 04
공사기간 | 2013. 04~2013. 08
사진 | 곽재혁

처음 건축주를 만났을 때 건축 비전공자라고는 보기 힘든 정도의 상세한 요구사항, 데이터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보여 졌지만 처음에는 건축사가 무었을 해야 할 지조차 힘든 첫 미팅 기억이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건축사가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추어 기본계획을 하고 디자인하여 건축주 협의 후 결과물을 만들고 있으나, 이 프로젝트는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가 한 팀이 되어(TEAMING) 처음 기본계획 때부터 사용승인까지 상호 철저하게 협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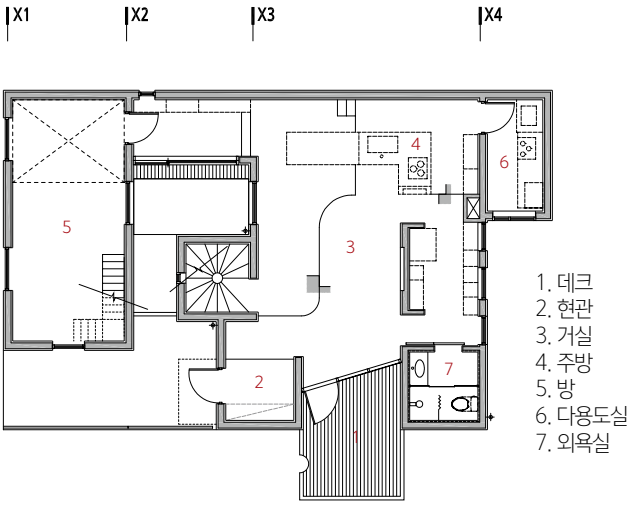
설계의 주안점은 미니멀, 그리고 군더더기 無의 내외장 디자인 구현이었다. 직사각형의 아주 간단한 매스에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요부분을 일부 깎아내고, 계단부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형태를 다듬고 비례를 맞추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건물 외관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도 디자인을 위하여 삭제하고, 그로 인한 수고스러움을 무던하게 받아들일 만큼 디자인의 완성에 집중한 주택이기도 하다. 여기에 봉곡도서관으로의 조망과 정원, 태양고도에 따른 태양광 유입 등의 감성,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이 無의 디자인에 넣고자 하였고, 실제 그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이 주택인 것이다.
내부공간구성은 최대한 목구조의 장선길이를 고려하여 열린 공간으로 1층, 2층을 구성하고, 자녀방은 중정 연못과 연계한 복도를 통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며, 다락을 이용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카페와 건축주 사무실 공간을 별동으로 배치하여 주거부분과 분리한 업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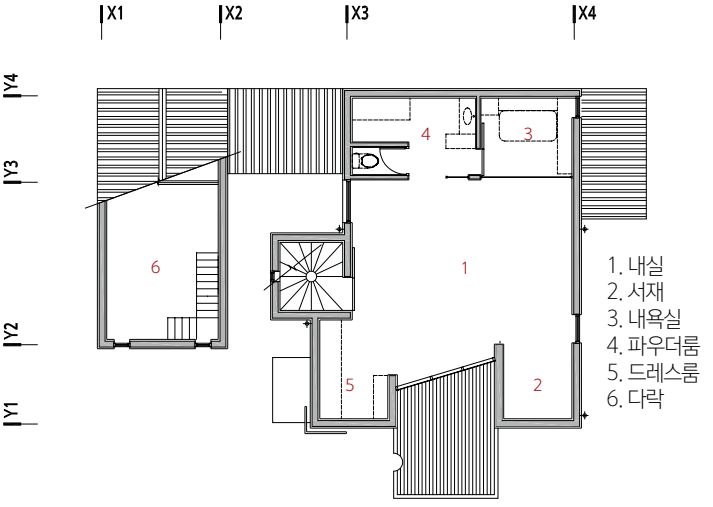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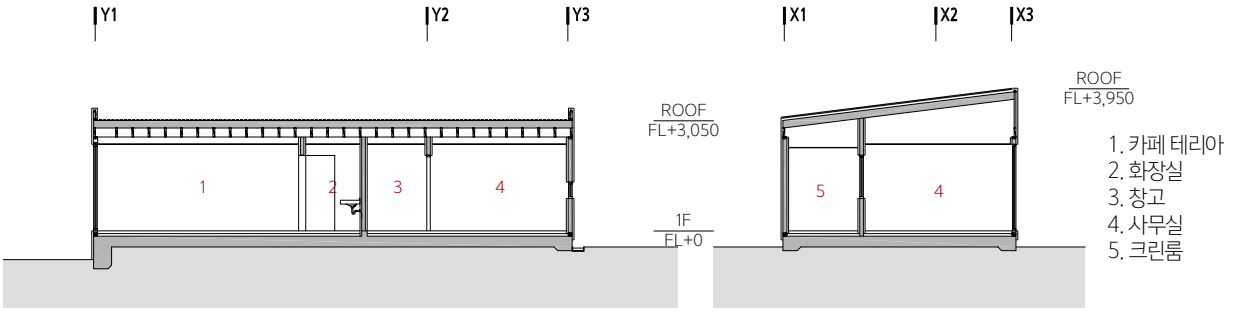
근생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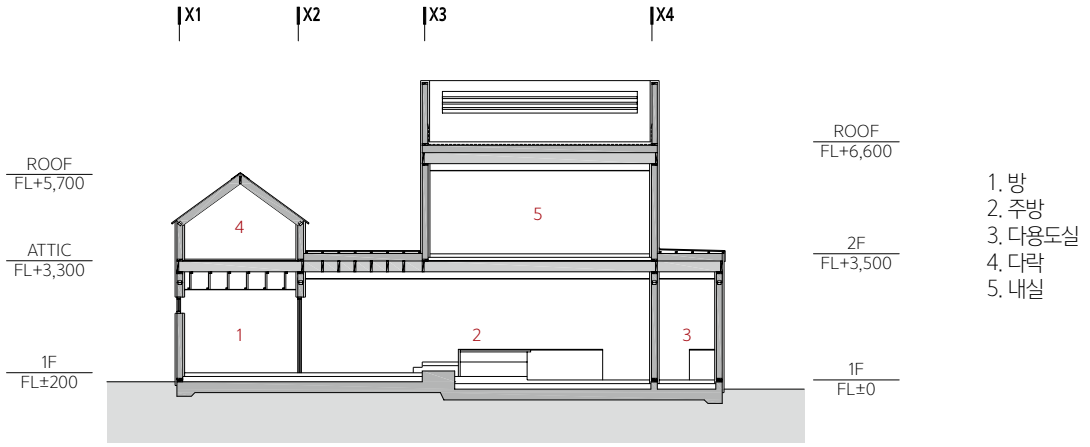
주거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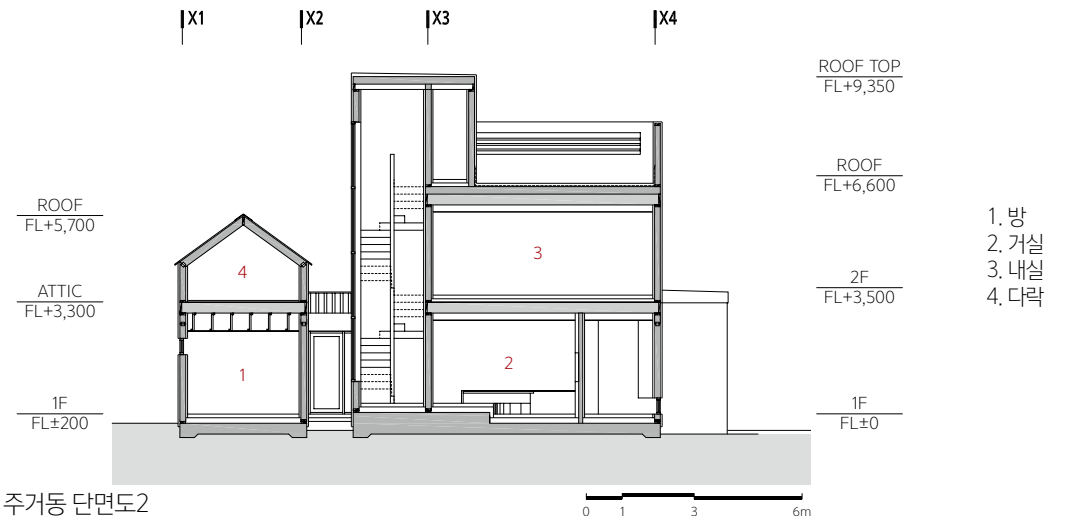
주거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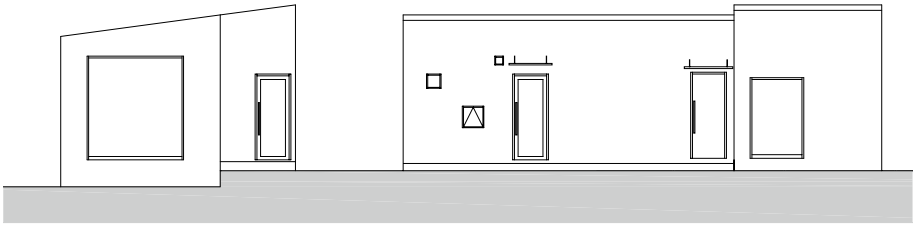
근생동 단면도



주거동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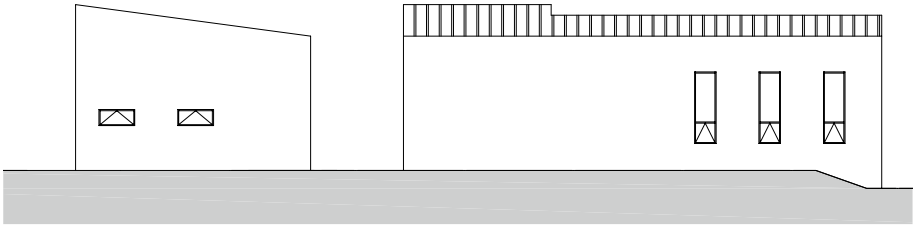


주거동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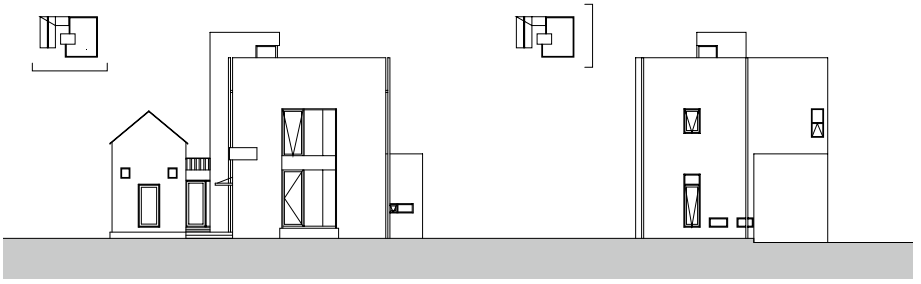
근생동 정면도

근생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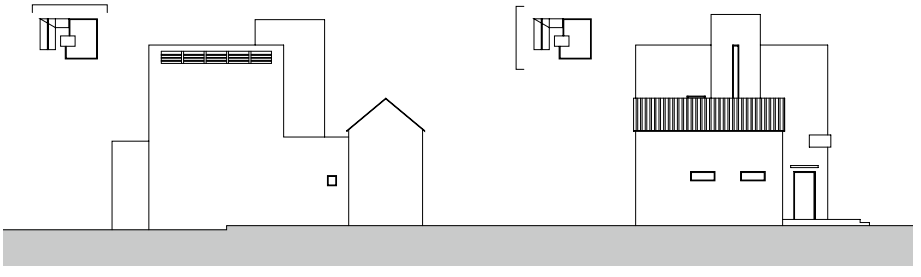
근생동 배면도

근생동 좌측면도



주거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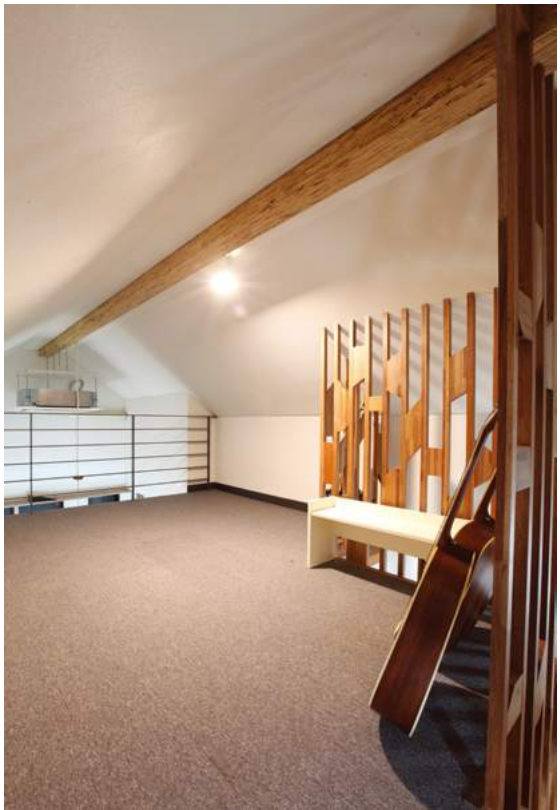
주거동 좌측면도



주거동 배면도

0 1 3 6m

주거동 우측면도



로이아우스

카사엘르

Casa ELLE

설계자 | **이진경**_KIRA | 신공간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최유리(인테리어), 신주선(인턴)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구조기술사 김수명
  - 기계설비분야 : 폴라리스 송영철
  - 전기분야 : 폴라리스 송영철
  - 소방분야 : 폴라리스 송영철

건축주 | 엄건순
감리자 | 이진경 / 신공간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최규태, 디자인하우디 최유리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2나길 8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741.00㎡
건축면적 | 142.21㎡
연면적 | 223.23㎡
건폐율 | 19.19%
용적률 | 29.99%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송판,노출콘크리트, 스터코, 씨코스톤, 징크
- 내부 : 래커, 샌그버그벽지, 원목마루, 포세린타일

설계기간 | 2015. 01~2015. 04
공사기간 | 2015. 05~2015. 12
사진 | 이진경

대지는 청주시의 북쪽방향의 내수읍의 묵방리[Mukbang-ri, 墨坊里]로서 아름다운 평야가 펼쳐진 모습이 그림같아 평소에 관심이 있던 지역이다. 시가지와는 5분 거리의 가까운 한적한 구릉의 택지개발된 주거단지이며. 동네의 특징은 서쪽에는 묵방천이 흐르고, 대부분 낮은 구릉지와 평지이다. 탑전소류지가 있으며, 묵방리는 예부터 먹을 만드는 먹방이 있었다하여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 한적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은 꿈을 지니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원하는 지인부부가 있었다. 계획의 시나리오는 인터뷰로 시작되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장님의 안락한 사생활을 보장하는 계획과 사모님의 소소한 문화활동과 요리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산자락의 끝부분에 위치한 대지는 서향이다. 그러나 환경적 조건이 풍부한 사이트였다.

기후, 기상, 지형, 토양, 바람, 경관 등 자연환경과 관계된 건축적 관계를 고려한다. 마을의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터라 비교적 자유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 배치는 마당을 5개로 분리한다. 향의 축을 따라 ㄷ자 배치하였다. 중세의 삼면화(Triptych)처럼 3메스가 독립되어 있지만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개념으로 시각적, 공간적, 물성적 트립틱을 이룬다.

대지의 전면(서향)에서 좌측에 주방을 배치하고 우측에 거실을 마련하였다. 중년인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약간 두어 문화적 생활을 풍부하게 즐기는 안주인의 주방은 필로티를 필요로 하였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4m의 기다란 탁자에서 지인들과의 담소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북쪽에 벽체를 치고 1.5X2.4M의 창을 내었다. 북측에는 현관으로 들어오는 잠기지 않는 유리로 된 문 이외엔 개구부가 없다. 북서풍의 센 바람을 막기 위해서였다.

초인종조차 없는 이 벽은 아는 사람은 자유로이 드나 들 수 있도록 제주의 3개의 긴 나무 '정낭'을 생각해내어 바람은 막고 잠금장치는 하지 않는다. 현관에 들어오면 유리창 사이로 자연이 펼쳐진다. 윈도우 픽춰는 밝은 실내를 만들어 준다. 정서향과 21도에서 32도로 비틀어진 평면은 최대한의 남향을 위함과 우측대지와의 프라이버시관계이다.

주방과 거실의 사이에는 전면 서측으로 난 큰 창을 가로질러 계단을 두어 서측에서 보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르내리는 동안 큰 창의 픽춰프레임 안으로 보이는 자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계단의 단면적 사선의 형태는, 부정형 평면에 의하여 주방과 거실의 시야가 삼각형으로 보여지는데 약 90센티미터에서 그 이하로만 보이게 했다. 이 부분은 건축주의 생활의 만족도를 높게 해 줄 것이다. 주방은 필로티에 많은 안주인의 손님들이 오가며 남자주인과의 동선의 엮임이 줄어든다.

거실에서는 남자주인의 개인적 마당이 삼각형으로 주어진다. 그것은 나만의 사색적 공간을 심어주기 위해 나무 한그루와 잔디밭 그리고 1.6M의 낮은 담장이 도움을 줄 것이다.

안주인의 작업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층 주방위에 안주인의 작업실을 만들었다. 밖으로 나가면 필로티의 윗부분으로 청주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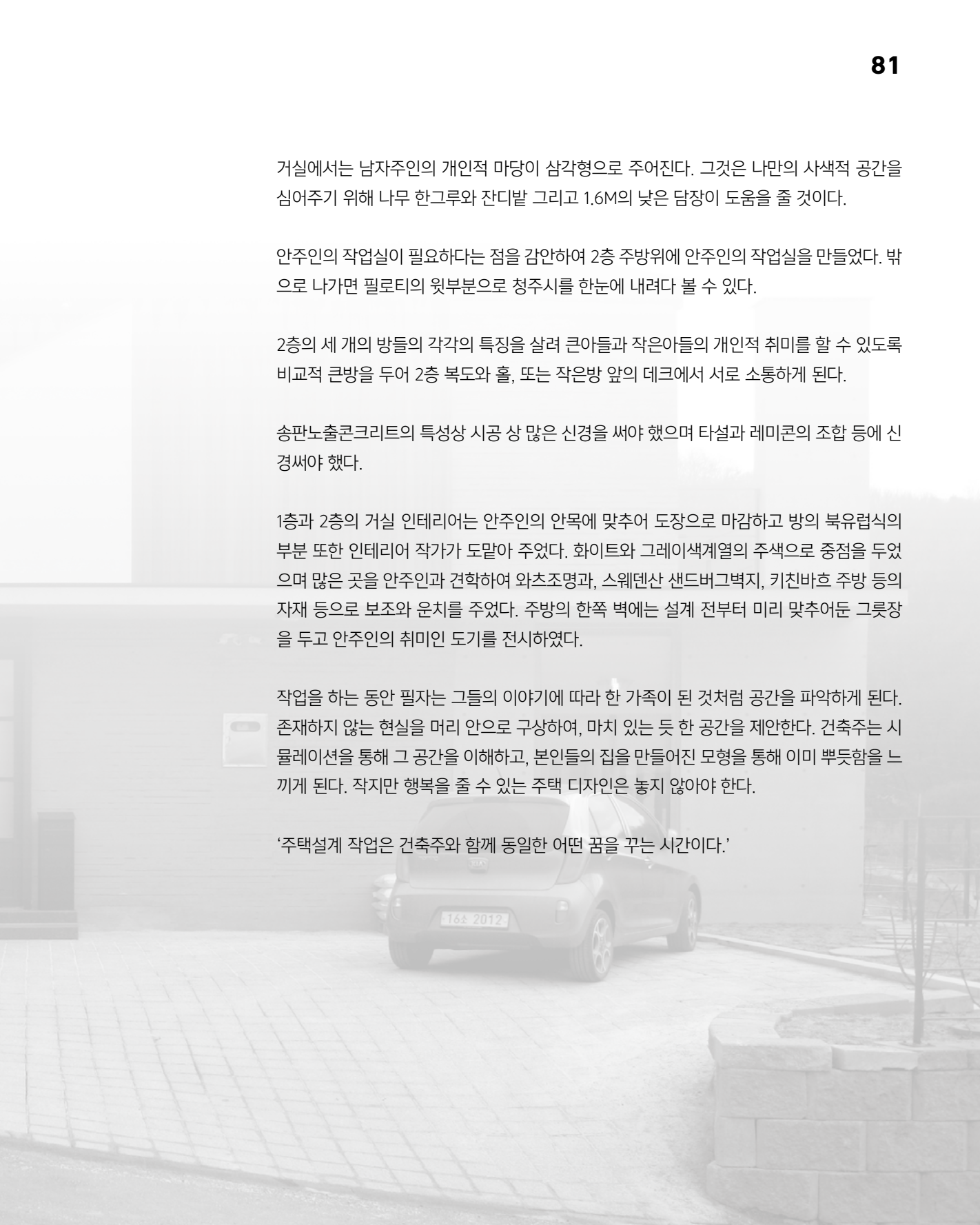
2층의 세 개의 방들의 각각의 특징을 살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개인적 취미를 할 수 있도록 비교적 큰방을 두어 2층 복도와 홀, 또는 작은방 앞의 데크에서 서로 소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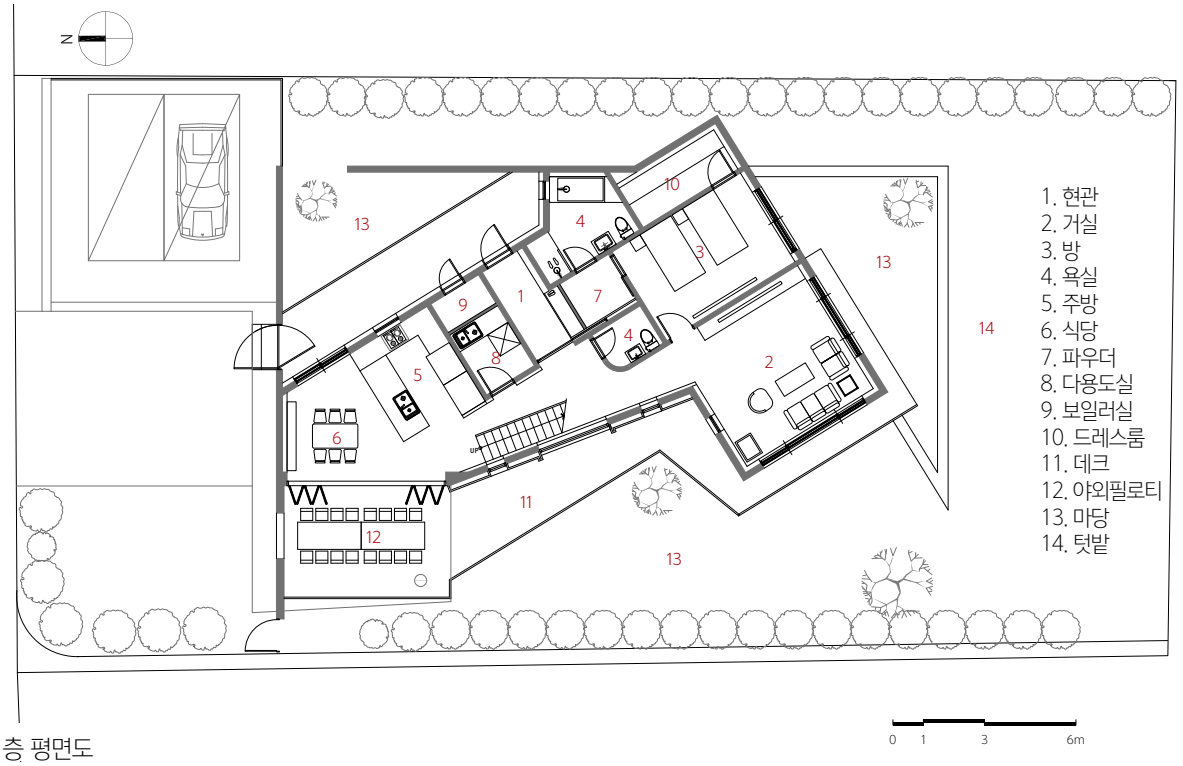
송판노출콘크리트의 특성상 시공 상 많은 신경을 써야 했으며 타설과 레미콘의 조합 등에 신경써야 했다.

1층과 2층의 거실 인테리어는 안주인의 안목에 맞추어 도장으로 마감하고 방의 북유럽식의 부분 또한 인테리어 작가가 도맡아 주었다. 화이트와 그레이색계열의 주색으로 중점을 두었으며 많은 곳을 안주인과 견학하여 와츠조명과, 스웨덴산 샌드버그벽지, 키친바흐 주방 등의 자재 등으로 보조와 운치를 주었다. 주방의 한쪽 벽에는 설계 전부터 미리 맞추어둔 그릇장을 두고 안주인의 취미인 도기를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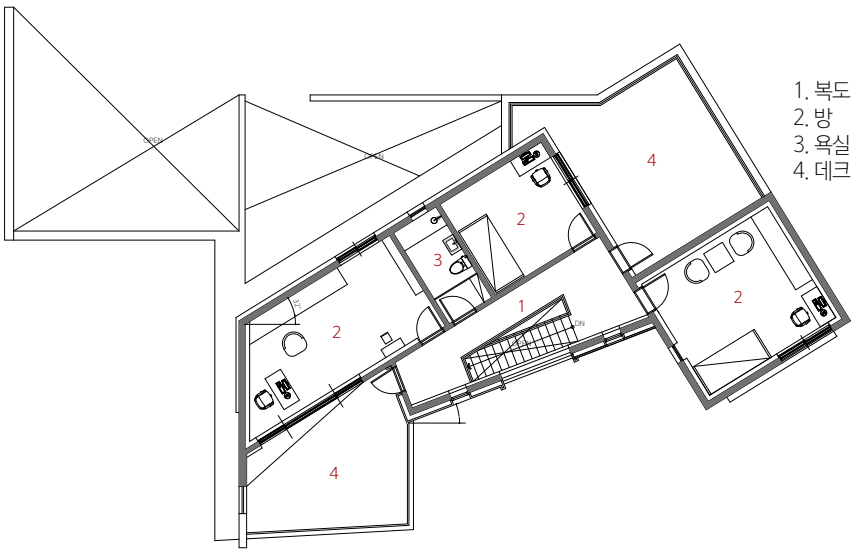
작업을 하는 동안 필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따라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공간을 파악하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머리 안으로 구상하여, 마치 있는 듯 한 공간을 제안한다. 건축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공간을 이해하고, 본인들의 집을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 이미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작지만 행복을 줄 수 있는 주택 디자인은 놓지 않아야 한다.

'주택설계 작업은 건축주와 함께 동일한 어떤 꿈을 꾸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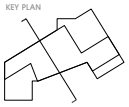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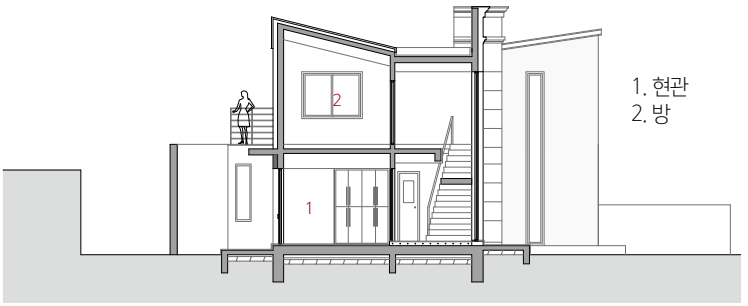

N
1. 현관
2. 거실
3. 방
4. 욕실
5. 주방
6. 식당
7. 파우더
8. 다용도실
9. 보일러실
10. 드레스룸
11. 데크
12. 야외필로티
13. 마당
14. 텃밭
0 1 3 6m

1층 평면도


1. 복도
2. 방
3. 욕실
4.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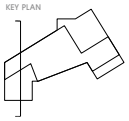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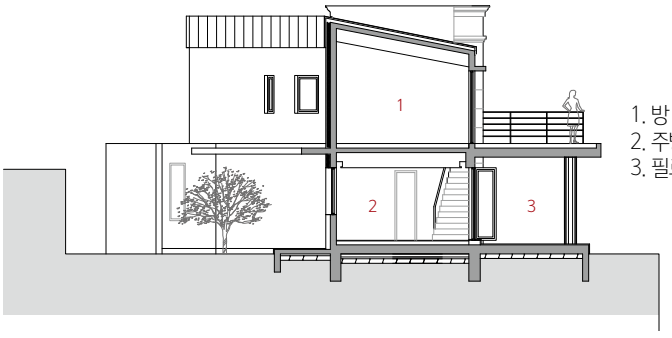




1. 현관
2.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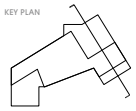
종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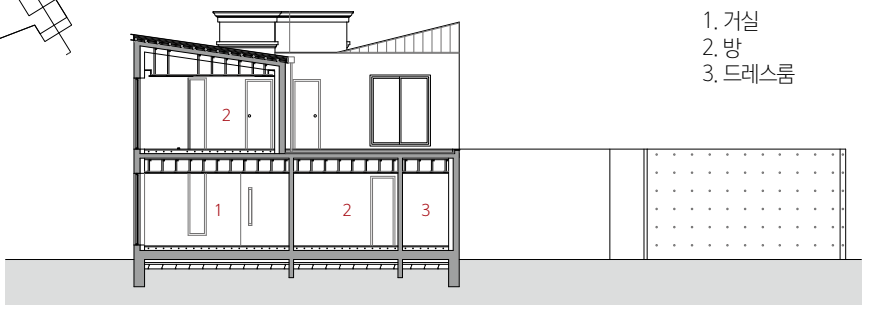




1. 방
2. 주방/식당
3. 필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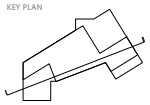
종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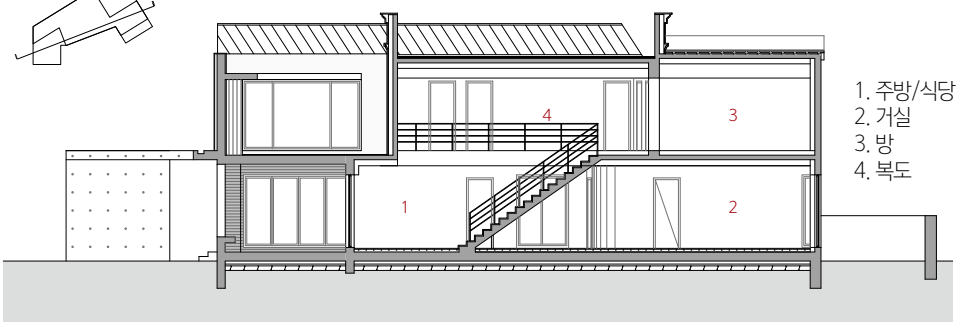




1. 거실
2. 방
3. 드레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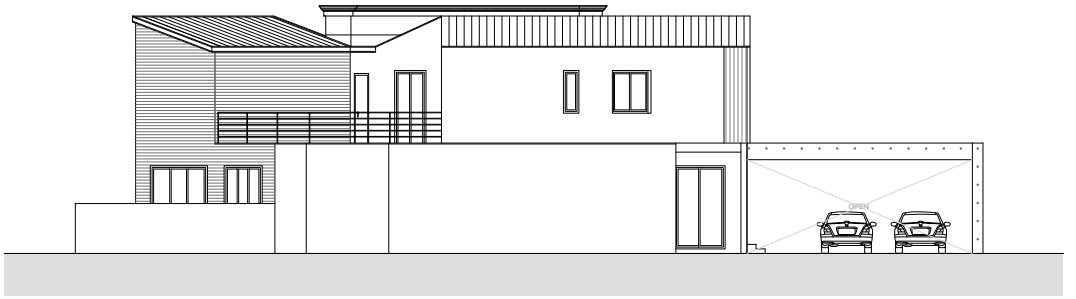
종단면도3





1. 주방/식당
2. 거실
3. 방
4.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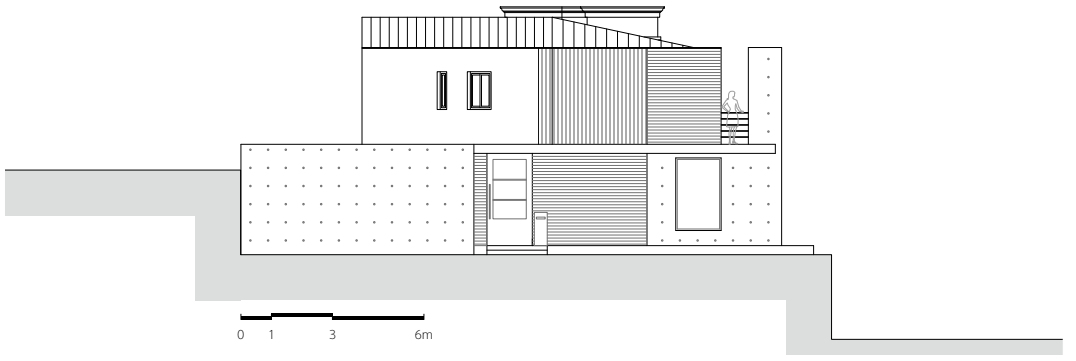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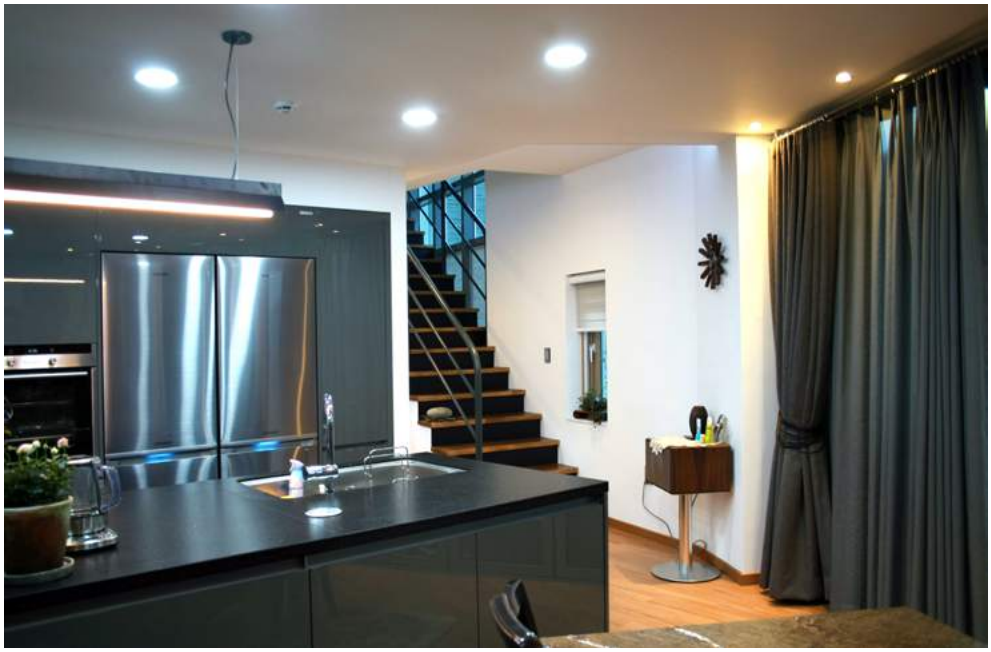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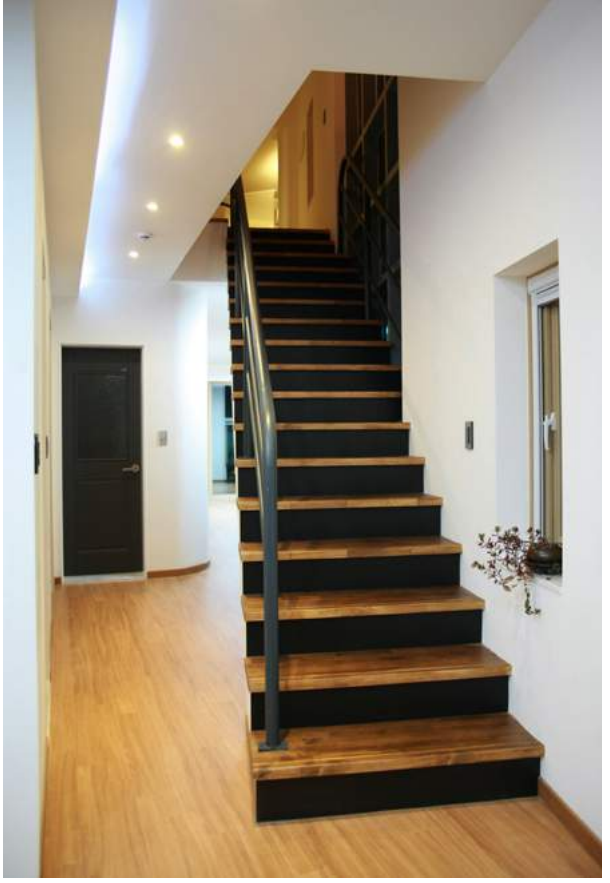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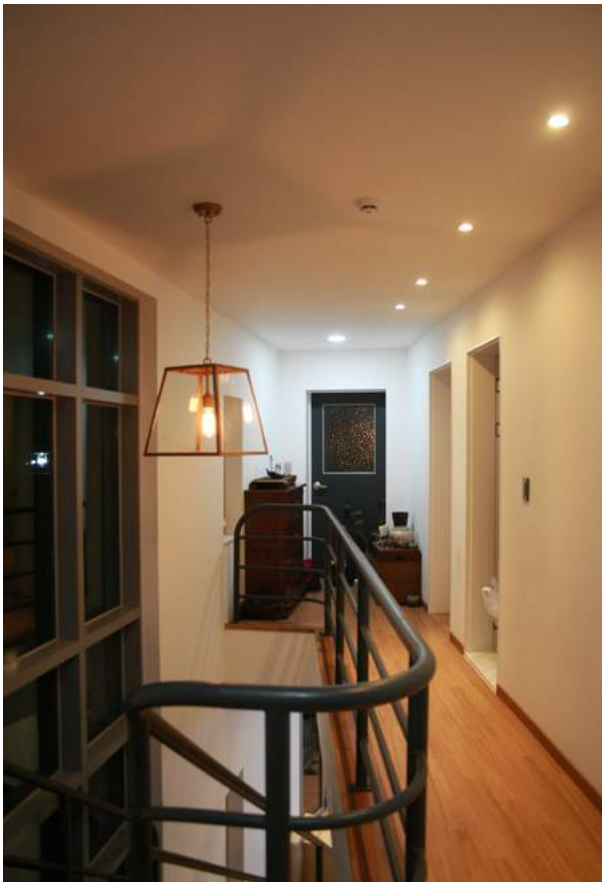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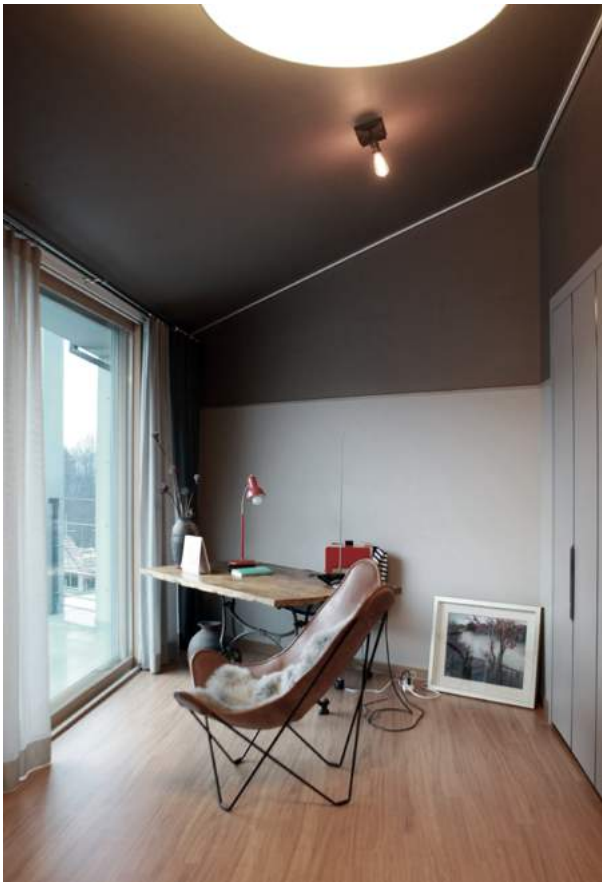


북측면도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Design competition : Yeosu Citizens' Sports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발 주 자 여수시청

설 계 자 임태형_KIRA | ㈜건축사사무소 플랜

이수용 | 건축사사무소 더반

설 계 팀 백선계, 조하니, 박영진, 조현민, 이록빈, 한임택

대지위치 여수시 오림동 102번지 일원(진남체육공원 내)

대지면적 약 9,500㎡

건축면적 1,863.79㎡

연 면 적 3,614.84㎡

건 폐 율 19.62%

용 적 률 27.93%

규 모 지하 1층, 지상2층

마 감

- 외부 : 금속지붕패널, 금속패널, 로이복층유리, 목재패널

Dynamic HUB_삶의 균형찾기

체육활동은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을 벗어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자립하는 것을 돕는데, 장애인에게 있어 그 의미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균형의 회복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크다. 진남체육공원에 들어설 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체육활동에 소외되어 있던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부해지는 구심점이 되는 Dynamic Hub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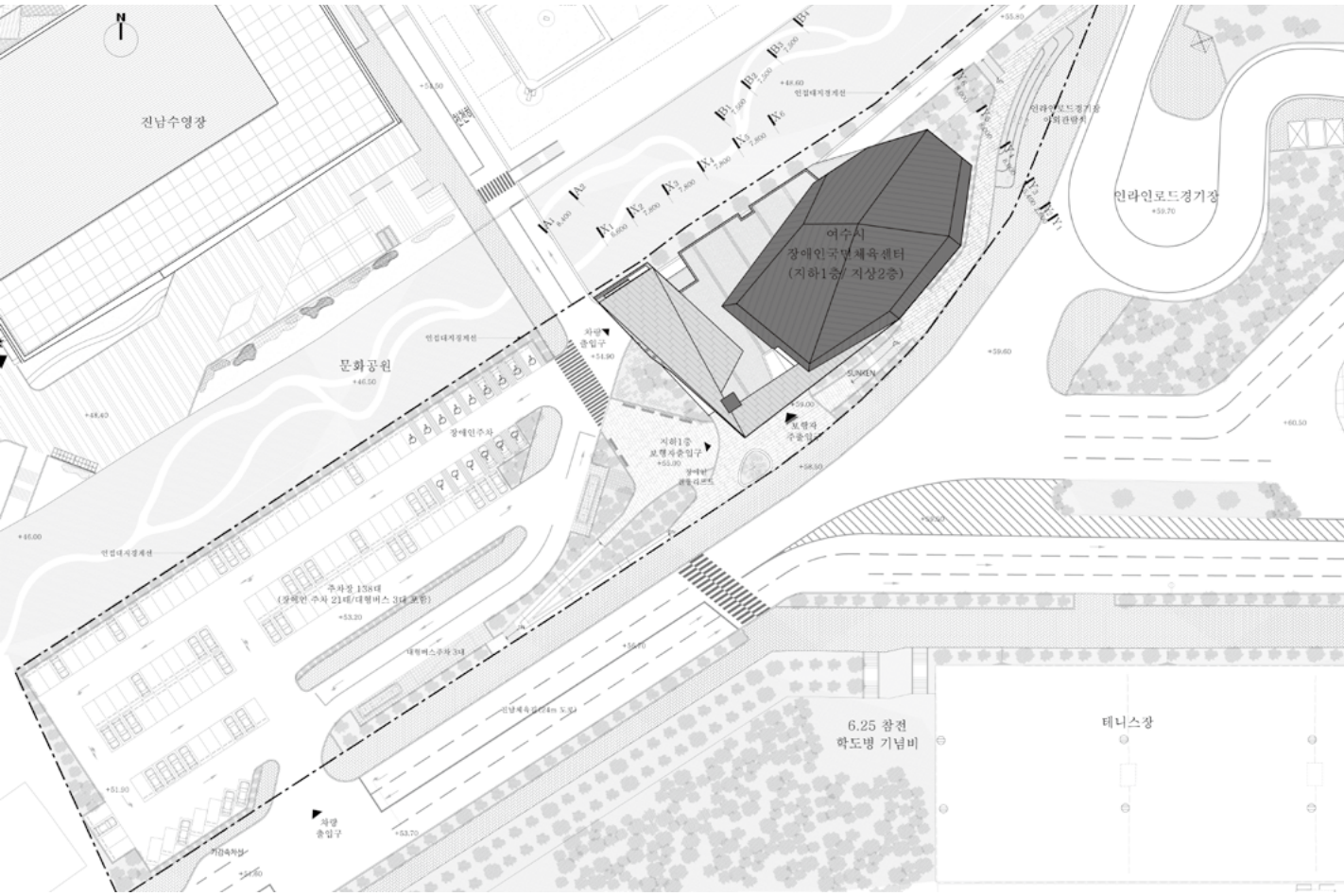
기존체육공원의 건물배치선상에 배치하여 경기장 클러스터의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지의 레벨차이를 고려하여 각 시설의 인지성을 확보하고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면부에 주차장을 존치하고 후면부에 체육센터를 배치하여 메인 진입구에서 접근하였을 때 장애인 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진남수영장과 인라인경기장을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현재 각 시설들 간 보행자들을 위한 모임공간 및 휴게공간이 결여되어 있어 이들 시설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들을 배치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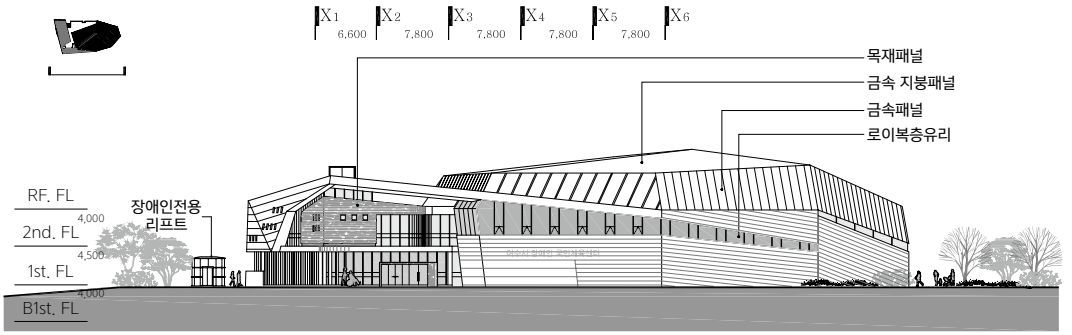
장애인이라는 특정 이용대상층을 고려하여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중점으로 계획하였다. 도로와의 3M 단차를 내, 외부적으로 극복하고 체육관 클러스터 내 동선의 흐름을 연결하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전용리프트와 계단,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건물 진입 시 각각의 레벨에서 직접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물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인접배치 하였다. 또한 이용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응집형으로 실을 배치하였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보치아, 농구, 배드민턴, 골볼 등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체육공간을 계획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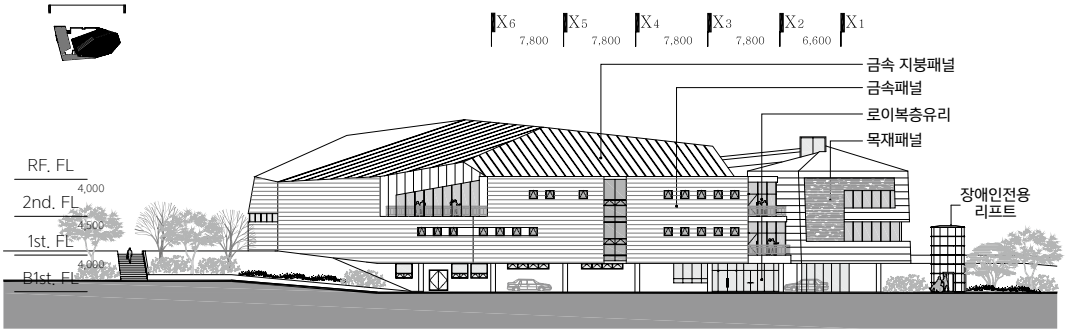
다각형의 매스와 상승하는 처마선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두에게 열린 장애 없는 시설을 표현하고 있고 지붕과 벽면을 따라 배열된 일방향의 패턴은 다각형의 체육관 매스와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체육시설임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N
진남수영장
문화공원
여수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지하1층/ 지상2층)
인라인로드경기장
6.25 참전
학도병 기념비
테니스장
주차장 158대
(장애인 주차 21대/대형버스 3대 포함)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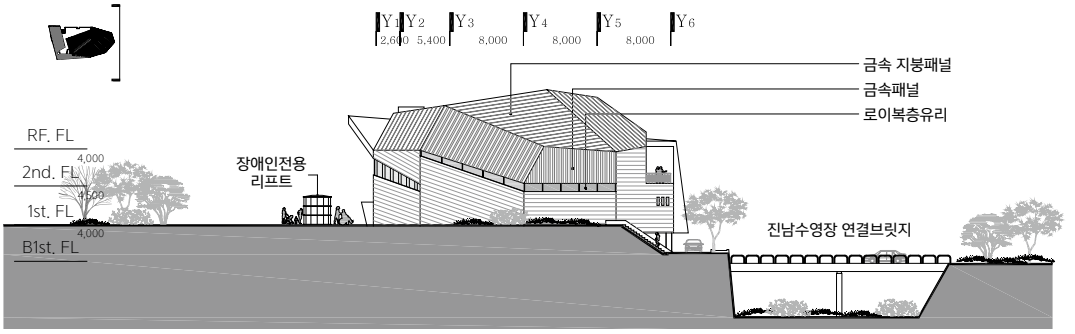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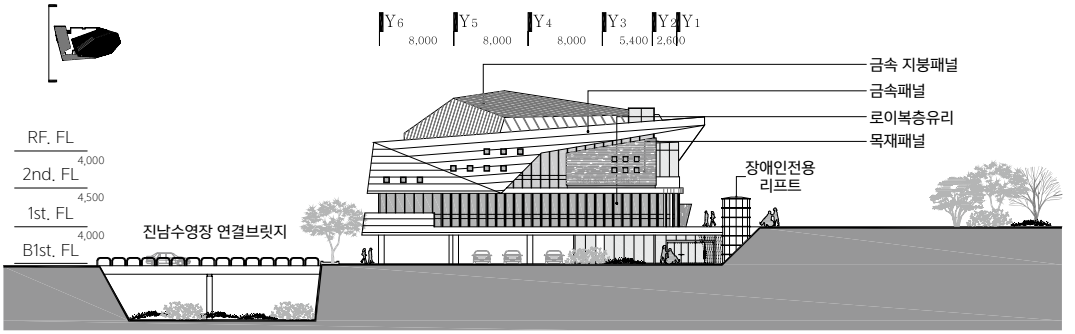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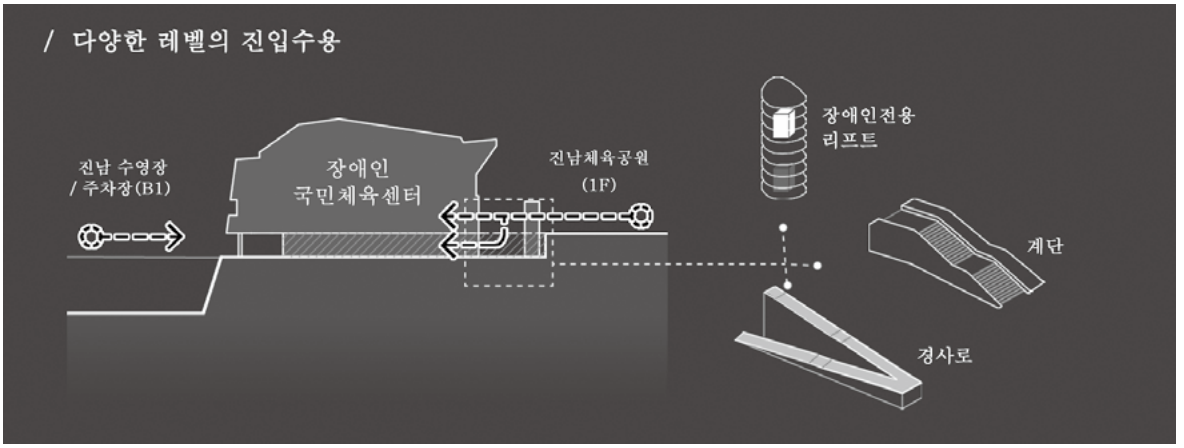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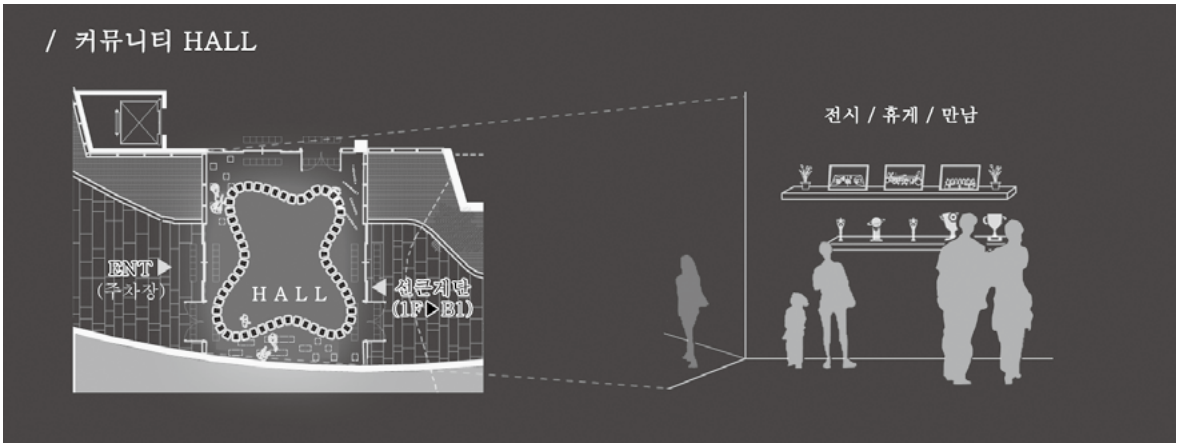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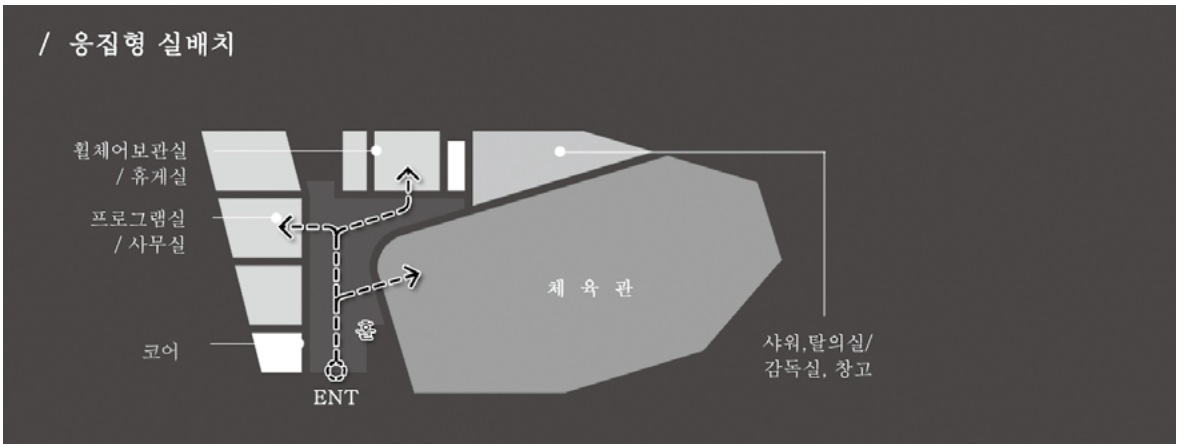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 다양한 레벨의 진입수용
진남 수영장
/ 주차장(B1)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진남체육공원
(1F)
장애인전용
리프트
계단
경사로


/ 커뮤니티 HALL
ENT
(주차장)
HALL
신큰계단
(1F▷B1)
전시 / 휴게 / 만남


/ 응집형 실배치
휠체어보관실
/ 휴게실
프로그램실
/ 사무실
코어
홀
ENT
체 육 관
샤워,탈의실/
감독실, 창고

평면계획

보편적인 멋 짓기, 건축

Universal Design and Architecture

글. 김성환_ Kim, Sung-hwan
Benz und Ziegler

디자인, 혹은 디자인하다. 순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안상수 선생님이 사용하신 '멋 지음'이라는 단어가 디자인을 가장 잘 표현한 순수 우리말이라고 생각한다. 멋을 마치 집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하듯이 지어내는 일련의 행동, 그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의 출발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경우 하나의 도구를 통해 지어내는 그 행위 자체, '멋'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디자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방식이다. 그 이유는, 일반 대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향의 제품과 달리 보통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

1. Alex McDowell – Berlinale Talent 2016 copyright
영화 Minority Report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했던 그는 이번 2016 Berlinale Talent에서 산업디자이너로서 난민수용소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제안했다.
산업디자이너로서 건축에 영역에 서서 제 3세계 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했다.

2. Adidas Originals's Superstar – adidas copyright
Adidas Original's Superstar, 하나의 신발을 넘어서 브랜드를 확고히 다지는 마케팅은 대중들에게 항상 이슈가 된다. 아디다스는 이 콜라보레이션을 Pharrel Williams 건축가 Zaha Hadid와 함께 진행하였다.

에 항상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때로는 기초를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혁신들 때문에 더욱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Universal Design,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보편적인 멋 지음'이다. 이 단어는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건축사 Ronald L. Mace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 개념 안에는 전반적으로 각 분야, 기본 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시도와 전망이 담겨져 있다. 어떤 한 물건이 사용되는데 있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다양한 신체크기와 능력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비 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경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보편적인 디자인'의 중심에는 동등한 상태와 취급 그리고 이점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건축, 제품, 그리고 환경이 같은 조건 안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더 나아가,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 교육, 일 그리고 여가의 범주 안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건축사는 Design, 즉 멋을 짓는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 왜 건축사가 건축에서 산업 디자인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Design에 관심을 가질까?

이는 비단, 건축사로서 가지는 질문이 아닌, 디자이너로서 모두가 가지는 공통된 질문이라 볼 수 있다. 즉, 디자이너로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스케일과 프로젝트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건축사가 건축의 영역에서 벗어나 가구나 조명

3. Z.CAR-II by Zaha Hadid Architects – Zaha Hadid Architects copyright

은 만들 수 있지만, 자동차나 스마트 폰에는 한계가 있고, 거꾸로 산업 디자인에 종사하는 디자이너가 거꾸로 마천루를 짓는데 한계가 있듯이 분명 그 경계는 있지만, 그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눌 수 없는 디자인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건축과 산업 디자인 사이의 경계에서 '보편적인 멋 지음'이란 더욱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에서는 축적된 기술이 우선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지만 자체기능에 관련된 언급은 부족하다. 반면에 다른 요소들에 있어서 '멋 지음'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건축 안에서 특정 수요를 가진 집단을 고려한 발달은 있었다. 이것은 기초 해결 방안 위에 특정 수요를 받아들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자주 최소화되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연결되거나 기존의 존재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추가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발달 구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기능적인 요구와 수요는 건축에서 눈에 띄게 중요해진 것이다. '보편적인 멋 지음'과 연관되어 건축이 가지는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각 공간이 가지는 유용성 하나하나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인 멋 지음'이 가지는 기능성의 보장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마무리 될 때까지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반면 산업 디자인에서는 언급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 '멋 지음'이란 때론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미적인 혹은 전적으로 사용자 측면에 연결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디자이너는 상식적인 실용주의나 예술적이고 이상적인 결정체 사이에서 선택해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공학적인 사고를 하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은 많지만 인체공학적으로 완성도 있는 제품은 사실 부족하다.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은 종종 지금까지 단일 계층의 특수

한 목적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의 '멋 지음'이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그 이유는, 디자이너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머리 속에 스스로 제품의 수요, 형태, 주제 등을 특정 대상으로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멋 지음'이란 이 환경 속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대상을 확장시키고, 제품의 기능적인 요구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제품 만드는 범주 속에서 새로운 차원을 수용하고 꼭 필요하게 하는 정확성을 제작자와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후, '보편적인 멋 지음 – Universal Design'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품이 가지는 범주와 전문성에 대한 도전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멋 지음 – Design'의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이들에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다주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건축사를 비롯한 모든 디자이너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 발견한 작은 부분까지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결국 모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하나의 멋 짓기'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4. ZHDLAB23Serac bench – 사진 JACOPO SPILI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형 수직도시의 실현

_ 오사카 아베노하루카스

Vertical City Project based on Trasit-Oriente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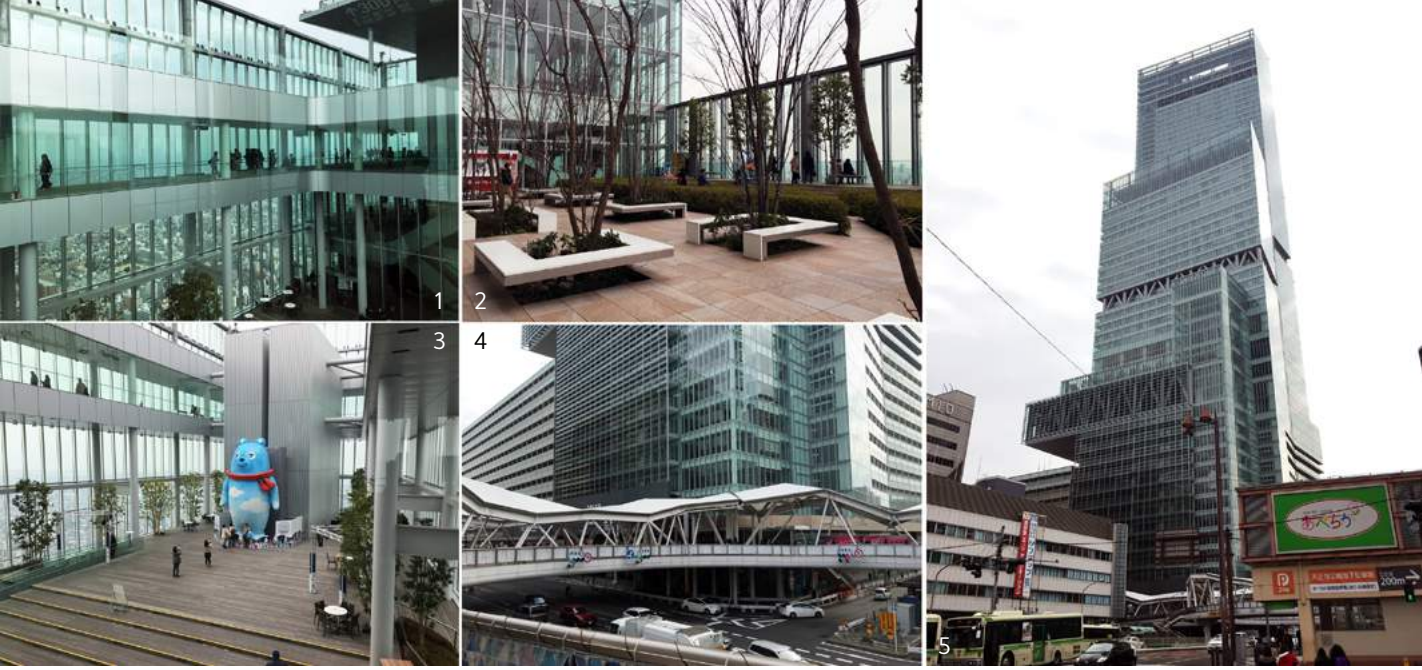
_ Osaka Abeno Harukas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야마구치국립대학 대학원이공계연구과 건축디자인공학분야 조교

아베노 하루카스(Abeno Harukas)[1]는 오사카시(大阪市) 아베노구(阿倍野区)에 입지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로서, 일본 사철인 오사카철도가 아베노바시역(大阪阿部野橋駅) 내에 1937년부터 영업해 온 아베노바시 터미널 구(舊)본관(백화점 서관)의 재건축을 계기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아베노바시역(大阪阿部野橋駅)은 아베노바시 터미널과 함께 지하와 지상을 복합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교통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본 역의 수직상부에 지상 60층 높이 300m의 현재 일본의 제일 높은 초고층 건축물이 세워졌다[2]. 이는 2002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장치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특별지구」의 지정[3]에 의해서 기준용적률 800%에서 1,600%로 높여 실현하였다.

---

1) 아베노(**阿倍野**)는 지역명, 하루카스는 "마음을 맑고 밝게 한다"는 의미의 고어 "**晴るかす**"에서 유래되었다.
2) 2011년 2월부터 지상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3월에 준공되었는데, 공사 중인 2012년 8월 시점에 높이 300m에 도달하여 요코하마(**横浜**)에 위치한 기존의 최고 높이였던 랜드마크타워(296m)를 초과하였다. 계획 당초(2006년)에는 항공법에 의해 높이 약 295m의 제한구역 내에 포함되어, 270m 전후의 높이계획을 실시하였으나, 2007년 항공법이 개정되어 높이제한이 폐지되었고, 이에 일본의 가장 높은 건물로 계획/조정하였다.
3) 도시재생특별장치법의 정령에 의해 지정된 「도시재생긴급정비구역」에 있어서, 지정되는 지구로서,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에 의한 기존 용도지역과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되고, 자유도가 높은 토지의 유효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2002년 제정된 「도시계획제안제도」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가능해졌다.



1. 전망대 천상회랑 2. 옥상 정원 3. 전망대 하부 천공정원 4. 각 역을 연결하는 육교 5. 외부 전경

그림 1) 아베노하루카스 내외부 전경

■ 역의 수직상부활용을 통한 입체 컴팩트 시티

일본 주요 대도시들은 버스가 중요 생활교통수단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철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 이른바 TOD(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형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주요 철도회사들이 철로를 건설하고 철도의 이용빈도를 높이기 위해, 각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해가는 형태의 일본 전형적인 도시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87년 JR국철의 민영화이후, 이른바 "역도시화" 또는 "역거대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와 도시 스프롤화에 따른 자동차의존도가 높은 교외도시의 환경부하 저감 문제 등의 대책으로서 도심부로의 도시구조 재편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한 도시집적과 이를 위한 도시개발이 더욱 그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지구 또한, JR서일본, 킨키(近畿)일본철도, 오사카시영(市營) 지하철, 한카이(阪堺) 전철 의 4개의 철도회사, 7개의 노선이 집적되어 있고, 1일 승하객수가 약 73만 명(서울역 약 10만 명)의 주요 교통결절점이다. 상기의 도시재생흐름에 입각하여, 역·백화점·미술관·오피스·호텔·전망대와 함께, 대학·선진의료시설·소극장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입체적으로 집적된 컴팩트시티를 실현시키고 있다. 6대의 엘리베이터와 99대의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기존의 철도네트워크와 수직 동선을 건축물의 각 도시기능과 접속시킴으로써, 입체도시 내의 이동의 편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 건축물 내 수직 보이드 네트워크

본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약 100m 간격을 3단계 셋백을 실시하고, 그 상부를 옥상 정원화하여 인접한 텐노지공원(天王寺公園)과 연계한 입체 녹지 네트워크를 실현함과 동시에 3개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수직보이드 공간을 도입하여 내부공간의 쾌적성과 저에너지를 실현하고 있다. 먼저, 최상부의 호텔과 전망대 부분에 있어서는 호텔 중앙 복도의 수직 보이드 공간을 통해 전망대의 상부로까지 돌출된 코어로 공기를 배출하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전망대 데크 하부공간에 냉기를 배출하여 에너지 삭감을 실현하고 있다. 중간층의 오피스부에서는 어두운 오피스 센터코어부분을 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반외부 공간으로 조성하고 중간중간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층을 도입하여 저에너지와 쾌적성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업시설에서는 기존의 구백화점 건물과 새로운 타워동 간의 접합부에 수직 보이드 공간을 설치하여, 상호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저층부의 상업시설이 끝나는 16층에는 콩코스 로비공간을 배치하여 미술관의 입구(16층)로서, 그리고 각 옥상정원, 전망대(60층), 오피스로비(17층), 백화점 레스토랑가(15층)로 이어지는 입체적 수직 동선을 지지하는 허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친환경적 요소의 도입

건축물의 최하층의 기초보에 둘러싸인 공간을 수조공간으로 활용하여 빗물 등을 중수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배수는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축적하고 있다. 또한 호텔 및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을

그림 2) 텐시바 광장 전경(상) 및 아베노하루카스 저층부 및 주변 전경(하)

실시하여, 외부로의 쓰레기 배출을 삭감하고 있으며, 연간 냉기를 필요로 하는 백화점의 발생배열을 활용하고 호텔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듯, 초고층건축물의 기초부, 높이 그리고 각 도시기능의 복합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에너지와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활동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변 녹지축의 연계-텐시바(Tenshiba)

2015년 가을에는 아베노 하루카스의 건너편에 위치한 텐노지 공원의 입구부지 약 7,000㎡에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잔디광장과 상업시설이 조성되었으며,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함께 정비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적극적 대응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연계하는 새로운 교류거점을 조성하였다. 이는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본 지구내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과의 건축물 규모상의 위화감 완화, 그리고, 주변지구로의 보행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접근성 향상 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도시공원「텐시바」는 오사카시로부터 민간매력창조사업자선정을 통해 공원관리자로서 킨테츠(近鉄)부동산주식회사가 채택되어, 12월부터 운영관리에 관해 협정서를 체결하고 잔디광장의 이벤트 활용 및 관리 등의 에리어 매니지먼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4].

<참고문헌>

1. 新建築, あべのハルカス, 新建築社, 89(4), pp.52-65, 2014
2. 新建築, Big compact Abeno Harukas supertall compact city : 超高層集密都市<Takenaka design works>, 89(11), 2014
3. TAKENAKA, 幸せや歓び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まちづくり」, 日本都市計画学会, 都市計画 <特別号:これからの都市計画>, 2016

4) ①아베노하루카스 : ▶사업주체:킨테츠(近鉄)부동산주식회사, ▶소재지: 大阪府大阪市 阿倍野区阿倍野筋1-1-43, ▶도시계획:도시재생특별지구(800%→1600%), ▶설계:타케나카(竹中) 공무점, ▶시공:타케나카(竹中) 공무점 등, ▶공기:2010년1월~2014년3월, ▶부지면적:28,700㎡, ▶연면적:212,000㎡, ▶구조:S·SRC조, ▶규모:지하5층 지상60층, ▶건물용도:백화점, 미술관, 오피스, 호텔, 전망대, 대학 위성캠퍼스 등 ②텐시바 : ▶사업주체:킨테츠(近鉄)부동산주식회사, ▶소재지: 大阪市 大阪府 543-0063, ▶도시계획:도시계획공원(사용허가), ▶설계·시공:타케나카(竹中) 공무점, ▶공기:2015년5월~9월, ▶부지면적:약 25,000㎡, ▶연면적:약 2,000㎡, ▶잔디면적:약 7,000㎡, ▶구조:목조, 규모:지상2층, ▶건물용도:판매·음식점포

감리자의 업무범위와 손해배상책임

Business scope of the supervisor and liability for damages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에 어떤 건축사를 만났다. 사연인즉 건물신축공사에서 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자신은 감리만 맡았다. 건축공사를 맡은 사람과 건축주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지 못해서 감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었다. 그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주는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건축주는 이 소송에서 감리자도 피고로 포함시켰다.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소장(訴狀)을 낸 것이다.

건축사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는 대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부실하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대금, 지체상금 때문에 건축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불똥이 건축사에게까지 튀는 경우가 많다. 감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금액은 감리비로 받은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고,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패소하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일부 부담해야 한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해야 한다.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면 가급적 재판을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한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무척 곤혹스럽다.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소송을 당하니, 일단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청

구해 온 손해배상금액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감리자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일해 오면서 건축분쟁사건을 많이 취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장시간 대화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건축사지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종전부터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소송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래야 건축사가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소송을 당한 건축사와 상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감리란 무엇인가? 감리계약이란 어떤 성질이고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는가? 감리자의 준수의무는 무엇이고,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등을 순차로 살펴본다.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Ⅱ. 감리자 상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최근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축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사가 잘못되면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단 감리자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다. 작은 규모의 공사에서 건축업자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우선 돈을 받기 쉬운 감리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손해배상에 관한 연대배상판결을 받게 되면, 감리자는 먼저 전체 금액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그중 일정 부분을 공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한다. 공사업자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일 경우가 많아 결국 감리자는 혼자 전체 금액을 손해보고 마는 결과가 된다.

설계를 맡아서 설계 잘못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설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덜 억울하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감리비로 받았던 건축사 입장에서는 감리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액 물어내면 정말 억울한 일이다.

실무에서 보면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설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감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설계 자체를 잘못해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혹 구조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설계 자체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감리자는 감리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약서 자체를 잘 읽어보고 체결해야 한다. 법령상 감리자는 어느 정도 철저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감리과정에서도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반 서류나 사진,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 없는 건축주가 소송을 걸어오면 완벽하게 대응을 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사가 억울한 소송을 당한 경우, 적극적인 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소송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감리자의 업무범위는 무엇인가?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속한다. 감리(監理)라 함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전문가로서 건축공사가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건축물이 안전하게 신축되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원래 이러한 공사감독과 확인업무는 건축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데, 법에서 감리자에게 이러한 감독 및 확인업무를 위임한 것이다.

감리업무는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규모가 작은 공사는 구두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없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곤란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리계약이라 함은 감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건축주는 그에 대한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감리계약은 이와 같이 <감리업무수행>과 그에 대한 <감리비지급>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雙務契約)이라는 용어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2개의 급부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감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감리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고, 행정상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법에서 '고의나 과실'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요소가 있어야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형법상 범죄에 있어서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Ⅳ. 감리계약은 준위임계약이다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설과 준위임계약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은 감리자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한 차이, 감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중단하였을 경우 감리업무의 이행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건축주가 파산했을 때 감리자가 감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감리계약은 감리라는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에 대해 감리업무 완성에 대한 대가로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너

무 어려운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한다. 건축사는 이렇게 깊이 법을 알 필요도 없다.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근거를 가진다. 어떠한 경우이든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한다.

감리자는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대판 2000. 8. 22. 2000다19342).

대법원은 민법 제690조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파산을 위임계약 종료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본다.

공사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감리계약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하고도 확실한 시공을 고려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업주체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감리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감리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판 2003. 1. 10. 2002다11236).

Ⅴ. 감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감리계약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감리비를 정하는 것이다. 감리비는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감리계약서에 감리비나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리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감리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에는 나중에 건축주가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거의 불공정법률행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감리자는 건축주 등 의뢰인에 대하여 감리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감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감리비를 계약금, 수회에 걸친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에 해당된다.

감리계약이 해지되거나 감리업무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에는 감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감리자는 자신이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처리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감리업무에 대한 처리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건축공정률에 따르는 방법과 감리한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은 감리계약의 성격은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보수는 반드시 건축공정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Ⅵ.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감리자가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리자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감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또한 감리자가 잘못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에서는 재해의 예방, 시공 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Ⅶ. 감리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감리자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아파트 옹벽에 위험이 예상되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적합한 전문토목건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파트 옹벽 아래에 2개의 어스앵커를 박아 넣은 후에 감리자가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균열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어스앵커 천공시 진동과 에어콤퓨레샤의 영향인 것 같고, 5번째 어스앵커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균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어스앵커 작업까지 빨리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감리자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감리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2001. 9. 7. 99다70365).

또 다른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터파기 작업을 설계도서상 C.I.P 공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공자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사감리자와 협의를 거쳐 목재토류벽 흙막이공법으로 시공하였다. 그 결과 인접한 건물의 지반침하와 기울기가 급격히 진행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감리자는 터파기작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주변 건물들이 균열되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공사현장에 가보고, 비로소 시공사에 대하여 터파기작업의 공사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사감리자는 터파기 작업시에 감리업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1997. 8. 22. 97다19670).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상의 하자를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법령에 감리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감리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감리자는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 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2001. 9. 7. 99다70365).

Ⅷ. 감리자 상대 소송의 문제점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9. 8. 8. 88다카27249).

대법원은 감리계약을 단순한 도급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건축주가 감리자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감리가 끝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감리자가 건축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감리가 끝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와 관련하여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건축만 전공하던 입장에서 건축관련소송에 대해 법률가와 대화를 해보면, 매우 답답한 심정이 된다.

우선 변호사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축전문용어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는 경우, 건축사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에 관해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축소송은 건축을 아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건축주 또는 제3자가 감리자를 상대로 감리계약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시작하면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건축분쟁소송은 다른 일반적인 소송과 달라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다른 재판과 달리 전문가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장과 입증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고, 심지어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그러면 건축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②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은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감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감정신청을 하지도 못한다. 물론 나중에 소송에서 100% 이기면 감정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이란 언제나 승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③ 증거가 불충분하고 애매모호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당시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나중에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을 찾지 못하거나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달라 입증에 애를 먹게 된다. 사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서로 인간적으로 믿고 구두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에 가서는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는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증인과 같은 인적 증거는 증인의 협조를 받기도 어렵다. 남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고, 오래된 사건에서 증인 자신도 정확하게 기

억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Ⅸ. 맺는 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범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까지 도입하였다.

또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현행 500만 원 내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 원 내지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앞으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의 감독도 강화되고,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리를 맡긴 건축주 또는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 추궁도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감리자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감리계약도 철저하게 하고, 감리업무 수행을 보다 완벽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글. 김홍기_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6.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8. 샤우라거와 헤르조그 앤 드 뫼롱 / 물성과 표층의 미학
9. 마리오 보타와 장 팅겔리 미술관 /호모 루덴스의 미학
10. 호세 루이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낭만적 건축의 배후
11. 안도 다다오와 랑엔 파운데이션/ 폐허 속에 피어난 예술공동체
12. 에빈 헤리히와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 자연과 건축의 공생
13.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공감각 예술과 건축
14. 요제프 호프만과 스토클레저택/ 총체예술의 원류

11

폐허속에 피어난 예술공동체
안도 다다오+ 랑엔 파운데이션

Ando Tadao + Langen Foundation

그림 1) 안도 다다오 설계에 의해 2004년 완공된 랑엔 파운데이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곳에는 절대 안 되는데, 전자파도 문제라는데, 사드 배치를 둘러 싼 논쟁이 자못 뜨겁다. 이런 문제는 40년 전에도 있었다. 핵탄두 3개를 장착할 수 있는 소련의 전략무기 SS-20 미사일이 1967년 11월 러시아혁명 5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된 후 서방은 잔뜩 긴장한다. 소련 공산당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SS-20의 유럽 전진 배치를 결정하자 미국과 나토는 즉각 퍼싱 미사일(Pershing Ⅱ Missile)의 유럽배치를 선언하지만 유럽 각국은 자국에 미사일이 설치되는 것을 기피한다.

결국 분단 상태에 있던 서독이 실마리를 풀 수밖에 없었다. 뒤셀도르프 인근 노이스(Neuss) 홈브로이히 들판, '라케텐스타치온'(Raketenstation)으로 불리는 나토기지에 1983년 퍼싱 미사일이 배치된다. 불과 6분이면 모스크바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요충지였다. 1980년대 말 독일이 통일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또한 와해되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91년 4월 완전 해체됐고 나토 역시 구소련과 무장해제 조약을 체결, 1992년 미사일 기지를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홈브로이히에서 미사일이 철수되고 나토 병력도 이곳을 떠났다. 폐기처분된 군사시설의 잔해들로 황량했던 이곳은 그로부터 20년 후 예술실험실로 재탄생된다.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들어서고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진다. 옛 미사일 지구를 찾아가는 홈브로이히 들판은 한편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숲은 가로 누워 쉬고 있고
개울물은 빠르게 흐른다.
바위는 묵묵히 그렇게 서있고
비가 촉촉이 내린다.

들녘에 논밭은 기다리고
샘물이 솟는다.
바람은 잔잔히 불고
축복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하이데거가 지은 이 시는 무심코 지나쳤던 소박한 자연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하이데거는 세계는 황폐해졌고 신들은 떠나 버렸다 했다. 대지는 파괴되고 인간들은 정체성과 인격을 상실한 채 대중의 일원으로 전락해버린 시대라고 규정했다. 대지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뿌리박은 대지와 산하가 한낱 에너지 자원이나 관광자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장소의 상실을 의미한다. 랑엔 파운데이션을 찾아가면서 하이데거의 시구를 떠올린 것은 잊고 있었던 자연을 만났기 때문으로, 독일 사람들은 이곳을 라케텐스타치온(Raketenstation)이라고 불렀다.

폐쇄된 로켓 발사기지 라케텐스타치온을 향하는 시선 앞에는 밀밭과 감자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곧게 뻗은 길을 따라가면 기차 건널목이 나오고 추수를 끝낸 밀밭의 황토가 보

그림 2) 랑엔 미술관이 위치한 홈브로이히 들판
(노이스 시로 연결되는 간선 도로에서 내려 들판을 거쳐 진입할 수 있다)

그림 3) 홈브로이히 들판의 진입로

그림 4) 홈브로이히 예술 지구의 배치도

인다. 돌아오는 길에는 촉촉이 비를 뿌렸다. 바람은 잔잔했다. 짧은 한나절이지만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자연의 예술품과 대하는 축복의 은은함으로 가득했다. 저주받은 들판으로 한때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이곳이 오늘날 세계적인 공간문화실험실로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냉전의 사각지대에 몰려든 예술가들

1992년 나토군이 철수했을 때 이곳은 기능을 다한 관제탑과 벙커시스템 등 폐기처분된 군사시설의 잔해들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었다. 자칫 흉물스런 저주의 땅으로 퇴화해 버리기 십상인 13에이커의 땅. 10년 이상 인근 홈브로이히 늪지대 일대를 미술관으로 개발해 온 칼 하인리히 뮐러(Karl Heinrich Muller)가 이 땅을 사들인다.[1] 그의 머릿속에는 냉전시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곳 자연환경을 살려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야심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다.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뮐러는 안도 다다오와 에르빈 헤리히, 올리버 쿠르제(Oliver Kruse), 가추히토 니시카와(Katsuhito Nishikawa) 등을 초청해 개발계획을 세워 나갔다. 이 때 만들어진 건축 개념은 199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출품됐다. 그해 뮐러는 홈브로이히 재단을 설립하고는 자신이 소유한 땅과 소장품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노이스(Neuss)시에 기증하는 대 결단을 내린다.

노이스 시는 이 일대를 예술과 문화와 과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작가들에게 분양했다. 제일 먼저 독일 현대문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인 토머스 클링(Thomas Kling)의 집필실이 들어섰다. 2005년 암으로 사망하기까지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면서 창작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곧이어 회화에서 공간주의 운동을 펼친 이탈리아 화가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스튜디오와 덴마크 출신의 만능예술가 페르 키르케비(Per Kirkeby), 독일 조각가 올리버 쿠르제, 일본 조각가 가추히토 니시카와 같은 다국적 예술가들의 주거용 아틀리에가 들어섰다. 레이문트 아브라함(Raimund Avraham)이 설계한 음악 스튜디오가 들어섰고, 조각가 에르빈 헤리히의 설계로 생의학 국제연구소가 건립됐다. 쓰러져 가던 군용 창고는 콘서트홀로 개조돼 정기적으로 음악회가 개최되고, 새로 건설된 강당에서는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열렸다.

---

1) 늪지대에 세워진 미술관을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으로 불린다. 이 미술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다룰 예정이다.

그림 5) 벙커로 사용되던 미사일기지의 참호시설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개조돼 사용하고 있다

그림 6) 관제탑의 현재 모

2004년 9월, 시적 느낌이 충만한 '랑엔 미술관'이 들어서자 이곳은 품격 높은 아트빌리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진다. 빅토르 랑엔(Viktor Langen)과 마리안느 랑엔(Marianne Langen) 부부에 의해 설립된 랑엔 재단의 소장품은 크게 일본미술과 서양 현대미술 두 부류로 나뉘는데, 12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5백여 점의 일본미술품과 장 뒤뷔페,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3백여 점의 현대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미술에 심취한 컬렉터로 알려져 있을 뿐 랑엔 부부에 대한 세부적인 경력은 크게 알려진 게 없다. 그들은 왜 일본미술에 심취했을까? 19세기 후반 서구 미술 속을 파고든 자포니즘을 빌어 랑엔 부부의 예술취향을 해석해 보기로 하자.

그림 7) 랑엔 미술관 주변의 둔덕, 미사일 발사를 위해 쌓은 방호벽 역할을 했다

빅토르 랑엔의 일본 미술 컬렉션과 자포니즘

19세기 중반 페리 제독에 의해 일본이 개항하자 서양 상선이 밀어닥쳤고, 런던과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 일본의 도자기와 부채, 우키요에가 소개되면서 일본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용트림한다. 18세기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중국 도자기에 대한 열기로 생성된 중국취미 시누아즈리(Chinoiserie)처럼 일본의 미술품에 대한 이국적 취미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술비평가 필립 뷔르티(Philippe Burty)가 일본미술에 대한 심취와 열풍을 일컬어 '자포니즘(Japonisme)'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1872년 무렵이나 훨씬 이전부터 일본 예술은 찬미의 대상된다. 최초의 징후가 나타난 곳은 파리였다.

1856년경 프랑스의 에칭화가 페릭스 브락몬(Felix Braquemond)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본의 목판화 그림 우키요에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우키요에는 서민적 풍속화에 불과했고, 도자기 적송품(積送品)을 위한 포장지로 사용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그 포장지 속에는 서양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일본적인 특성이 배어 있었다. 우키요에 열풍이 불자 1870년대와 1880년대, 많은 프랑스 컬렉터와 작가, 예술 평론가들이 일본으로 건너왔고, 반대로 하야시 타다마사(林忠正)와 같은 일본 미술상도 파리에서 개업을 한다. 컬렉터들뿐만 아니라 화가들에게도 자포니즘 현상이 파고든 것이다.

모네는 수집한 일본 판화를 벽에 붙여놓았고 반 고흐와 동생 테오는 4백여 장에 이르는 일본 판화를 수집하였으며,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nard)는 '자포나르((Japonard)'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일본 미술에 심취했다. 고흐가 모사한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강호명소백경(江戶名所百景)', 모네의 '기모노를 입은 소녀' 뿐만 아니라 부채에 쓴 스테판 말라르메의 4행시 모두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일본 미술이 이처럼 강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인상파 이후 전개되는 유럽 미술의 과도기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서양화가들이 근대적인 표현기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즈음, 절제와 여백, 비대칭의 미가 강조된 일본 목판화 속에는 혼탁한 시각을 환기시키는 환각제 같은 성분이 농축되어 있었다. 화가들은 성분을 분해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한 세기나 더 흐른 1960년대 초반, 사업을 목적으로 일본을 자주 방문한 빅토르 랑엔의 눈에 일본미술은 여전히 이국적으로 다가왔다. 빅토르 랑엔은 일본을 들를 때마다 미술상을 돌아다니며 12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회화를 비롯해 족자와 판화 그리고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사들였다.

빅토르 랑엔이 미술 작품에 눈을 뜬 것은 마리안느 헤이만(Marianne Heimann)과 결혼한

1930년대이지만 본격적인 컬렉션은 195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다. 부친이 물려준 자동차 부품공장을 크게 성장시켜 사업가로 성장한 빅토르 랑엔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작품을 특히 좋아했다. 앵포르멜 미술의 선구자 뒤뷔페야말로 피카소 이후 가장 중요한 예술가라고 여긴 랑엔 부부는 뒤뷔페의 파리 작업실을 수시로 방문해 그의 최근작들을 사들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일본자동차회사와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을 처음 방문하면서 그의 시선은 일본미술품으로 옮아간다. 그가 구입한 일본 미술 컬렉션은 물경 5백여 작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일본 미술작품을 소유한 컬렉터로 이름을 떨친다.

1990년 빅토르 랑엔이 사망하자, 마리안느 홀로 컬렉션을 돌봐야만 했다. 그녀 역시 여든을 넘긴 나이. 소장품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리안느가 안도 다다오의 건축도면을 처음 대한 것은 아흔 줄에 접어든 2001년이었다. 안도 다다오가 1995년 칼 하인리히 뮐러의 초청으로 홈브로이히 미사일기지를 방문했을 때 만든 계획안으로, 199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출품했던 작품이었다. 마리안느는 계획안을 보자마자 즉시 자신의 미술관 건축으로 삼을 것을 결정한다. 그녀 스스로 '건축을 수집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다다오의 계획안은 그녀가 구입한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큰 규모의 컬렉션이었다. 2002년 11월 랑엔 미술관의 터파기가 시작되었고 2004년 9월 미술관은 완공되었다. 마리안느 랑엔은 안타깝게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92세의 나이로 2002년 타계했다. 재단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그녀의 딸 스타빈 크라세망(Stabine Crasemann)의 주도 아래 랑엔 미술관은 준공식을 갖게 된다.

그림 9) 빅토르 랑엔의 일본미술 컬렉션

그림 8) 랑엔 파운데이션이 소장한 장 뒤뷔페 의 1945년작

여백과 침묵, 현상체로서의 건축

2004년 9월 12일. 랑엔 미술관 개관기념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 타이틀은 '침묵의 그림(Picture of the Silence)'. 일본 미술품 90작품과 막스 베크만(Max Beckmann),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안토니 타피에스(Antoni Tpies) 등 서구 현대미술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여백의 강조된 일본 목판화와 숭고의 미학을 자아내는 마크 로스코의 회화는 제목에 걸맞게 침묵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침묵의 그림'이라는 타이틀에 가장 적극적으로 영합한 것은 랑엔 미술관의 극소주의적 이미지였다. 시어(詩語)와 시어 사이에 침묵과 여백이 존재하는 말라르메의 상징시처럼 랑엔 미술관은 정제된 침묵의 건축이었다.

안도 다다오 건축의 들머리에는 자주 초대장과 같은 가벽이 존재한다. 낮게 드리운 반원형의 콘크리트 벽, 그 불투명한 가벽 사이로 사각의 통로가 나있고 통로를 지나면 인공 연못이 연극 무대처럼 나타난다. 진입을 물과 동행시키는 방식은 안도 다다오가 즐겨 쓰는 방식으로, 이 때 인공 연못은 산책적 체험과 현상학적인 카타르시스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외부 산책을 마치고 전시품 감상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정화의 과정과도 같다. 랑엔 미술관 입구의 잔잔한 물결은 유리를 머금고 유리에서는 물빛이 묻어난다.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pton)이 안도 다다오 건축을 평하면서 말한 '현상학적 감흥'이다.

그림 10) 다다오의 건축 들머리에는 초대장과 같은 가벽이 존재한다

외피를 감싸는 유리상자의 크기는 폭 10.8미터, 길이 76미터인 반면 유리 안에 담긴 콘크리트 상자는 폭 5.4미터, 길이 66미터이다. 유리 케이스에 작은 상자를 밀어 넣은 것처럼 콘크리트와 유리 사이에는 2.7미터의 회랑이 형성된다. 입구를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 회랑을 거쳐야만 한다. 안도 다다오가 즐겨 쓰는 회유식 동선이다. 이길, 저 길 우회하면서 풍경을 감상하는 일본식 회유정원의 특성을 반영된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말하지만, 안도 다다오는 일본 전통사찰의 우회하는 동선이 자신의 건축에 녹아있다고 말한다. 이유야 어쨌든 그의 건축은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우회를 즐긴다. 회랑 양 끝단에는 폭이 5미터는 족히 넘는 빈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정념의 공간이다.

그림 11) 미술관 입구의 잔잔한 물결은 유리를 머금고 유리빛에는 물빛이 묻어난다

채움보다는 비움을 통해 정신은 환기되고 사색과 관조가 생성된다는 관념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모더니즘의 미학은 형상을 강조한 나머지 주변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건축을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물체로 인식한 반면, 안도 다다오 같은 세컨드 모더니스트들은 외부와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건축이 감성을 품은 현상체로 구현되길 원하는 것이다. 유리로 감싸인 랑엔 미술관은 물체가 아닌 현상체라 봐도 좋은 것이다.

장소성과 기하충돌, 대지미술로서의 건축

1994년 뮐러의 초청으로 미사일 지구를 처음 찾은 안도 다다오는 군사 기지가 지닌 독특한 장소성에 깊은 흥미를 느낀다.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둔덕, 그 앞에 펼쳐진 야생의 들판, 방치된 관제탑과 벙커들이야말로 독특한 장소성을 산출하는 모티프들이었다. 안도 다다오는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역사적·시간적 흔적을 거스르지 말아야한다는 책무에 휩싸인다. 랑엔 미술관이 들어설 부지는 미사일 기지 중심에 있었다. 높은 둔덕이 읍성처럼 에워싼 안온한 장소로 미사일 발사대가 있던 바로 그 지점으로, 건축사는 둔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미술관 몸체를 반 이상 지하에 묻었다. 지상 구조물은 비물질적으로 보이도록 유리로 감쌌다. 하늘의 모습과 물의 모습을 비추니 자연과 건축은 한 몸이 되었다. 지중에 몸체가 절반 이상 묻히니 오브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지미술처럼 보였다. 건물 앞에 물을 두니 물 위에 부유한 현상체로 시적 감흥이 증대되었다. 대지와 물과 건축은 종속 변수를 덜어내고 무위(無爲)의 관계를 이룬다.

그림 12) 랑엔 미술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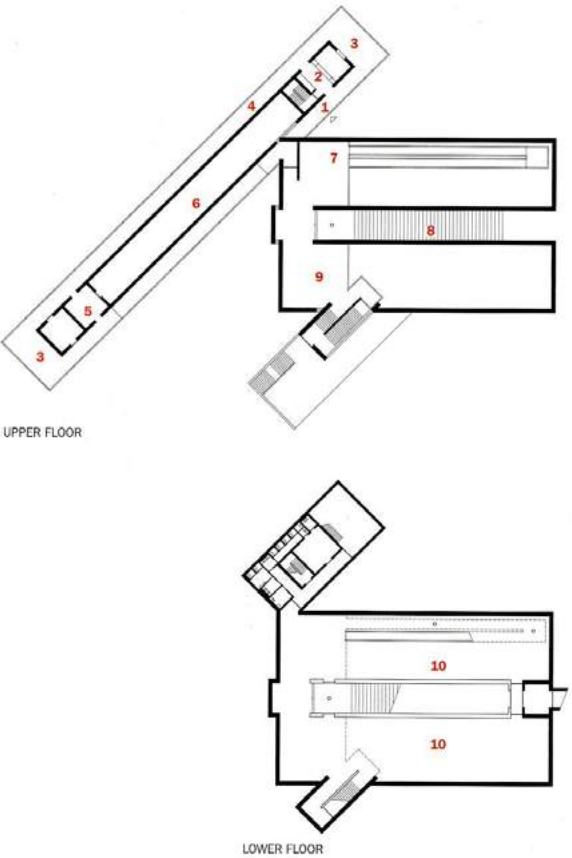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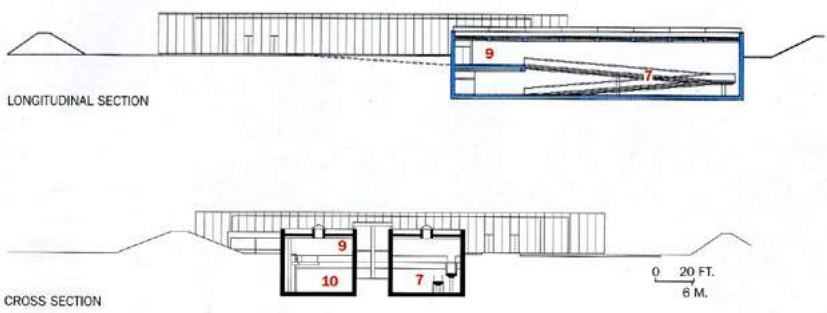


그림 13) 랑엔 미술관 단면도



1. 출입구
2. 안내카운터
3. 라운지
4. 회랑
5. 전시실입구
6. 저팬아트 갤러리
7. 경사로
8. 외부계단
9. 메자닌 갤러리
10. 모던아트 갤러리

하강의 시퀀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휘닉스 아일랜드에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명상공간 '지니어스 로사이(Ginius Loci)'가 지중에 들어서 있다. 미술작품들이 띄엄띄엄 전시돼 있지만 명상을 통해 정신적 자유로움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상에서 지하공간으로 진행되는 하강의 시퀀스는 감동적인 체험을 낳는다. 하강의 동선은 안도 다다오 건축에서 자주 발견되는 수법으로, 랑엔 미술관 역시 하강의 시퀀스를 이룬다. 안도 다다오는 시퀀스의 극적 변이를 위해 의도적인 기하 충돌을 즐겨왔다. 컨테이너처럼 긴 장방형의 유리상자와 지하에 반 이상 묻혀 있는 정방형의 매스는 45도 각도로 만나는데, 다다오는 매스와 매스가 만나는 접점에 좁고 어두운 게이트를 두었다. 이곳을 지나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내려하면 8미터 높이의 지하 전시실과 조우한다.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에서는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미술작품들이 시공을 초월해 한군데 모여 있지만, 랑엔 미술관에서는 일본미술과 서구의 현대미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방에 전시된다. 일본미술품을 전시하는 재팬 룸(Japansammlung)은 지상 유리박스 내부에,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모던 룸(Sammlung der Moderne)은 지하에 몸을 숨기고 있다. 지붕 슬래브 중앙에 길게 나있는 천창을 통해 자연광은 침윤된다. 이 빛은 측면광과 함께 음예 공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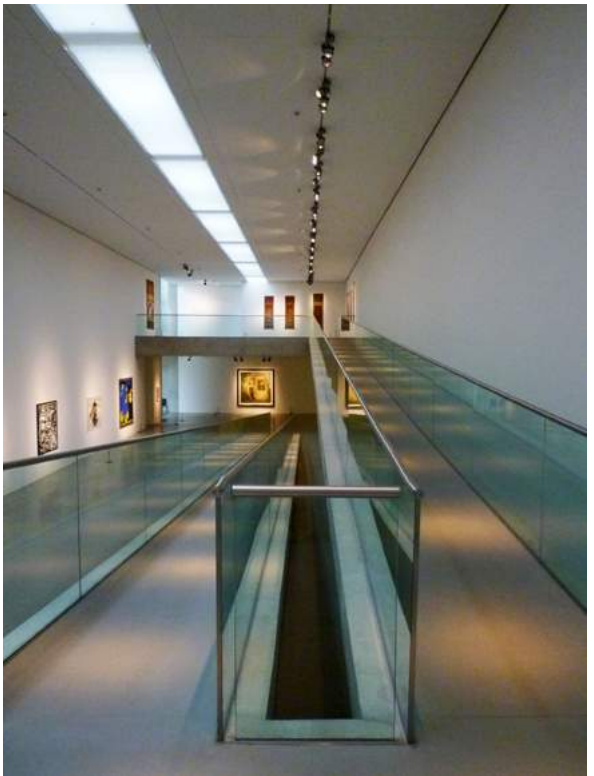


그림 14) 완만한 경사로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8미터 천장고를 지닌 현대미술 전시실과 만난다.

극소주의, 표층의 시학

노출콘크리트를 줄곧 사용함으로서 '건축의 누드작가'로 불려온 안도 다다오. 화장을 하지 않은 담백한 얼굴처럼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처럼 그의 건축은 즉물적인 속성을 갖는다. 랑엔 미술관 홈페이지는 '실크 같다(silklike)'는 표현으로 노출 콘크리트 표면을 찬미한다. 표면이 실크처럼 은백색을 머금고 무광택의 금속표면처럼 느껴지다 보니 중량감은 탈각되고 무중력 상태를 표출한다. 콘크리트를 미적 대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콘크리트 강도 최소 210kg/㎠ 이상, 콘크리트 반죽의 정도를 나타내는 슬럼프 값 15cm 이하, 물 시멘트 55% 이하, 공기량은 4%, 단위 시멘트량 270kg/㎤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거푸집은 우레탄 도박 3중 코팅된 합판을 사용해야만 대리석 표면처럼 만질만질한 표면을 얻어낼 수 있다. 랑엔 미술관에서는 거푸집 합판의 줄눈마저 희미하고, 폼타이 구멍만이 노출 콘크리트 면에 남아 무중력의 신비감을 표출한다. 조각가가 연마를 통해 만질만질한 대리석 표면을 창출해 내듯이 랑엔 미술관의 콘크리트 표면에는 '장인정신(craftsmanship)'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랑엔 미술관이 지닌 극소주의는 미니멀리즘의 근원이 동양에 있음을 현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콘셉트는 일본풍이다. 전시작품도 일본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뿐더러 진입로의 가로수도 벚나무이며 유리 철제 프레임도 다다미 모듈에서 따왔다. 일본 미술품에 매료된 자포네즈아리적인 정취는 미술관 곳곳에 건축으로 번안돼 있다.

공간장소실험실, 그 외의 건축들

2005년 '예술과 건축, 조경의 실험-홈브로이히 공간장소실험실'(Experiments in art-arthitecture-landscape: Hombroich spaceplacelab)이라는 주제로 미국 내에서 전시회가 있었다.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을 순회 전시한 것으로서, 미사일 기지로 사용되었던 홈브로이히 라케텐스타치온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안도 다다오 이외에도 시게루 반이 참여했고 독일의 프라이 오토와 올리버 쿠르제, 포르투갈의 알바로 시자, 미국의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레이문트 아브라함, 덴마크의 페르 키르케비, 독일의 에르빈 헤리히와 아나톨 헤르츠펠트 등이 참여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에서 홈브로이히를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 것은 두 번째로, 1996년에도 같은 주제로 개최된 적이 있으나 2004년 전시는 이전보다 건축사들의 참여 폭이 컸다. 문화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한 홈브로이히 프로젝트는 개개의 건축이 실현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1996년 제안된 안도 다다오의 계획안과 레이문트 아브라함의 안은 2004년과 2008년에 완성되었다. 8년 내지 12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 이곳에 완성된 건물과 조각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1. 랑엔 파운데이션 2. 음악가의 집(레이문트 아브라함) 3. 알바로 시자 파빌리온
4. 생화학 연구소(에르빈 헤리히) 5. 루치오 폰타나 파빌리온 6.진입로

에두아르도 칠리다 조각 베기아리(Begiari)

높이 15.2미터의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의 콘크리트 조각이 나토 미사일지구에 들어선 것은 2001년 2월. 세워질 당시에 이 조각은 알프스 북쪽지역에 세워진 조각 중 가장 큰 높이를 자랑했다. 안토니 타피에스(Antoni Tapies)와 함께 스페인 현대조각의 리더로 불려온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어린 시절 꿈은 건축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조각가로 활동하면서도 3차원적인 공가개념을 중시했다. 자신을 '내적공간의 건축사(architect of inner space)'라고 불렀고, 모뉴멘탈한 건축적 스케일을 즐겼다.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신비주의적 자연숭배사상을 지닌 민족으로 알려져 있듯이, 칠리다의 조각에도 그런 성향이 숨겨져 있다. '성스러운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 행해졌던 고대의식(rite)의 세계를 조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림 16) 스페인 조각가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높이 15미터의 콘크리트 조각
(2001년 당시 알프스 북쪽 지역에 세워진 조각 중 가장 큰 높이였다)

라케텐스타치온에 위치한 거대한 돌조각 역시 토테미즘적인 상징성으로 해독될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은 1977년에 제작된 '바람의 빗(Wind Combs)'. 칠리다의 고향 산세바스챤의 바닷가 벼랑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데, 철학자 하이데거는 에두아르도 칠리다를 만나고 난 뒤 칠리다의 세계와 관련하여 '예술과 공간'이라는 글을 1969년 발표하기도 했다. 베니스비

엔날레 대상(1958), 칸딘스키상(1960), 카네기상(1964)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칠리다 작품이 올림픽의 공식예술판화로 선정되었고,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미술거장전에 그의 작품이 출품되기도 했다. 홈브로이히 미사일 기지에 베기아리를 세우고 1년 뒤인 2002년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7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레이문트 아브라함의 음악가의 집(Musician's House)

레이문트 아브라함은 오스트리아 린츠 출신으로 그라츠 공과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후, 1971년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건축 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이곳에 음악가를 위한 집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으로, 완공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다. 오디오의 텐테이블의 형태를 조형적 모티프로 삼은 음악가의 집은 직경 33미터의 원형평면으로 콘크리트로 된 지붕 슬라브는 칼로 빗겨 잘라낸 듯이 15도의 경사를 지니고 있다. 중앙에 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4개의 주거공간이 등장한다. 네 명의 음악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중앙에 공용공간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고 작곡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레이문트 아브라함의 건축은 매우 실험적이어서, 그가 그린 유토피아적 드로잉은 건축 저널지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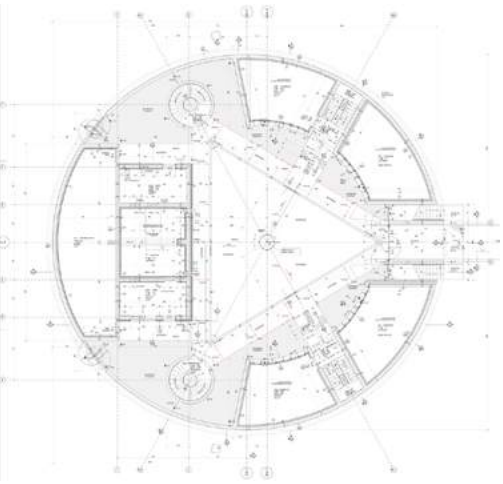


그림 17) 음악가의 집 평면도

그림 18) 레이문트 아브라함의 설계에 의해 2008년 완공된 음악가의 집

그림 19) 에르빈 헤리히가 설계한 국제생화학연구소 건물과 조각

인접한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에서 10개가 넘는 건물을 설계했던 에르빈 헤리히 역시 이곳에서도 4개의 건물을 설계했다. 국제 생의학 연구소(IIB)와 루치오 폰타나의 스튜디오는 조형적으로 매우 우수한 건축으로 평가받는다. 생물학자, 화학자, 의학자, 물리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생의학 연구소는 중국, 영국, 네덜란드,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위스, 한국,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대학연구소와 제휴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생한 조각가 페르 키르케비의 작업실은 국도에서 랑엔 미술관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랑엔 파운데이션 가기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쾰른과 라인강이 흐르는 뒤셀도르프만 둘러보고 떠난다. 그러나 십여 년 전부터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과 랑엔 미술관을 보기위해 뒤셀도르프 인근 노이스를 찾기 시작했다. 뒤셀도르프에서 노이스까지는 열차로 15분, 이곳에서 다시 버스로 랑엔

미술관이 위치한 홈브리이히에 도착하면 밀밭과 감자밭이 펼쳐진 평원과 만나고, 50여 년 동안 나토의 미사일발사기지로 사용되던 라케텐스타치온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헤이리 아트밸리가 이곳의 개발 형식과 유사하다는 영문 글도 간혹 발견되지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 듯싶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 방식은 헤이리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전체부지의 10퍼센트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달고 있다. 생태환경의 보존을 전제로 한 저밀도 개발이다.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과 라케텐스타치온 홈브로이히의 특징은 자연과 예술과 건축과 인간이 조화롭게 화합하는데 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타운으로 자리 잡은 홈브로이히 프로젝트는 아트벨리를 구축하려는 많은 시도의 귀감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 때 미사일기지로 사용되었던 이곳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장소적 존재감'이 충만한 곳이자 노자가 언급한 '무위자연'의 세계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독일 뒤셀도르프역에서 기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노이스역(Neuss Hof)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홈브로이히로 가는 버스를 타는 방법은 두가지. 하나는 노이스역에서 버스를 타고 노이스 졸스트라세(Zollstraße)에서 내려 869 또는 877번 버스를 갈아타는 방법이 있으나 처음 도착한 여행객이 지정된 곳에서 버스를 갈아타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방법보다는 열차를 이용해 환승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 노이스 중앙역에서 노이스 남역(Nuess Sud)을 통과하는 S-Bahn 열차를 타고 첫 번째 정차역인 남역에서 내려 플랫폼을 빠져나오면 바로 869번 또는 877번 정류장과 바로 만난다.

홈브로이히로 가는 버스는 매시간 두 편 정도. 주말에는 하루에 4-5편 밖에 없으니 랑엔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왼쪽 숲 쪽에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이, 오른쪽 들판 멀리 랑엔 파운데이션이 위치한 라케텐스테이션이 위치해 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과 랑겐 미술관을 연계한 컴비네이션 티켓(17유로)을 구입해 관람하면 두개의 미술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가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홈브로이히 미술관 카페테리아 이용이 무료임을 생각하면 결코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다. 늪지대에 세워진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소개할 예정이다.